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제4차 학술심포지엄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일시 2022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사회 : 김상덕(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기조강연

<사회신조> 채택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_ 한규무(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초청강연

가톨릭 사회참여 여정을 통해 본 <사회신조> _ 장동훈(인천가톨릭대학교)

1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에 대한 윤리적 평가

발표자 : 최경석(남서울대학교) / 논찬자 : 손승호(한국기독교역사문제재단)

2

<사회신조>를 통해 본 해방 후 정부 수립기의 개신교 사회운동 - 그 의미와 과제

발표자 : 홍성표(연세대학교) / 논찬자 : 하희경(감리교신학대학교)

3

<사회신조>를 통해 본 197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사회운동 - 그 의미와 과제

발표자 : 강혁(장로회신학대학교) / 논찬자 : 고성휘(성공회대학교)

공동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The 4th
SYMPOSIUM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제4차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 주 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일 시 : 2022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사회신조> 채택 9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NCC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김학중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뜻깊은 심포지엄에 발표와 논찬을 맡아주신 패널 여러분, 또 본 행사에 관심을 갖고 귀한 시간을 내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언론인,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는 2024년은 우리 교회협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시기에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남긴 발자취들을 돌아보고,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100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 평가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구체적인 작업과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NCC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를 정리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협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 사회운동사를 정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교회협의 출범과 역사는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현재까지 13권의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자료집』이 간행되었으며(향후 7권 추가 발간 예정),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통사를 각계의 전문가를 집필위원으로 위촉해 역사집필 중에 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 사회운동 신학선언, 한국기독교 100대 인물·장소 선정, 관련 역사문화콘텐츠와 역사순례 프로그램의 개발, 교회협 내 기독교사회운동 사료실의 설치 및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착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업을 감당하고 수행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의 광범위한 활동과 영역에 대해 그 성격을 규명하고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제1차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심포지엄(2019)의 주제를 “기독교 사회운동의 정체성”으로 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연구의 개념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5.18 민주화운동과 기독교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역할과 반성,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민족분단의 현실과 좌우 냉전체제를 기독교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냉전과 한국기독교”라는 주제로 한국의 현대사 속 냉전의식과 체제의 극복을 위한 역사적, 신학적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NCCK)가 한국기독교의 첫 에큐메니칼 기구로서 1924년 조직된 이후, 식민지 현실 속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당면 과제들을 정리한 <사회신조>(1932)를 채택한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네 번째 심포지엄은 이러한 뜻깊은 선언이자 문서인 <사회신조>의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회신조>에서 언급된 12개 조의 내용들이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주하고 성취되어 왔는지, 그리고 한국기독교가 민족사와 함께 걸어온 숨 가쁜 여정 속에서 <사회신조>의 정신과 유산은 무엇인지 성찰하고 반성해 보고자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엄혹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채택된 <사회신조>, 그러나 아직도 성취되지 못한 <사회신조>의 여러 과제를 마주하며, ‘자긍심’과 ‘부끄러움’이 역설적으로 교차하기도 하지만,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삼아,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세상 속에서 펼쳐낼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번 100주년 기념사업의 캐치프레이즈는 “다가올 역사, 기억될 미래”입니다. 이제 네 번째를 맞이하는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 교회협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까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사회신조> 속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를 재발견하고, 향후 걸어가게 될 한국기독교의 발걸음이 ‘다가올 역사’가 될 수 있는 뜻깊은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응원, 따뜻한 후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중

목 차

■ [인사말] 김학중 (NCK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1
--------------------------------------	---

■ [기조강연] 한규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사회신조> 채택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5
--	---

■ [초청강연] 장동훈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을 더 잘 이해할 때까지 - 가톨릭 사회참여 여정을 통해 본 <사회신조>	13
---	----

■ [제1발제]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에 대한 윤리적 평가	23
---	----

■ [제1논찬] 손승호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42
----------------------------	----

■ [제2발제] 홍성표 (연세대학교) <사회신조>를 통해 본 해방 후 정부 수립기의 개신교 사회운동 - 그 의미와 과제	48
---	----

■ [제2논찬] 하희정 (감리교신학대학교)	68
-------------------------	----

■ [제3발제] 강혁 (장로회신학대학교) <사회신조>를 통해 본 197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사회운동 - 그 의미와 과제	70
---	----

■ [제3논찬] 고성휘 (성공회대학교)	84
-----------------------	----

■ [종합토론] 전체 발표자 및 토론자	
-----------------------	--

일 정

사회 : 김상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 간	내 용	
14:00-14:10(10분)	인사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14:10-14:25(15분)	기조강연	한규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4:25~14:40(15분)	초청강연	장동훈 (인천가톨릭대학교)
14:40~15:05(25분)	제1발제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15:05~15:10(5분)	제1논찬	손승호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15:10~15:20(10분)	휴 식	
15:20~15:45(25분)	제2발제	홍성표 (연세대학교)
15:45~15:50(5분)	제2논찬	하희정 (감리교신학대학교)
15:50~16:15(25분)	제3발제	강혁 (장로회신학대학교)
16:15~16:20(5분)	제3논찬	고성휘 (성공회대학교)
16:20~17:00(40분)	종합토론	

<사회신조> 채택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1. 머리말

1932년 9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제9회 회의록」 52쪽에는 ‘朝鮮基督教聯合公議會社會信條草案’이 실려 있다. 정확히 90년 전이며, 오늘 학술심포지엄도 ‘NCKK 사회신조 채택 90주년 기념’을 위한 것이다.

90주년이 왜 뜻깊은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더라도 파격적인 조항들이, 비록 그 독창성이 의심받고는 있으나, 90년 전에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항들은 90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는 현금 반추해야 할 ‘금과옥조(金科玉條)’들이 담겨 있다. 최근 언론에서 90년 전의 <사회신조>를 다룬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¹⁾

강연자는 <사회신조>에 대해 깊이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강연을 수락한 것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막상 살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앞으로 해소해야 할 의문,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 같다.

2.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들

강연자는, 시작부터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던지려 한다. 첫째, 대체 <사회신조>란 무엇인가, 둘째, 그것이 과연 발표되었는가, 셋째, 연합공의회는 그 실현을 위해 당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넷째, 그것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하는 점 등이다.

1) ‘사회신조(社會信條)’란 무엇인가

1) 『경향신문』 2021.07.01. 「지금 봐도 개혁적인 90년 전 NCKK 사회신조」; 『국민일보』 2022.01.11. 「기독교는 이미 90년 전 ‘비정규직 차별금지’ ‘평등사회’ 외쳐」.

‘사회’와 ‘신조’는 알겠으나 ‘사회신조’가 무엇인지는 강연자에게 모호하다. 2) 인터넷에서 ‘사회신조’를 검색하니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1932년 9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에서 채택한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에 대한 신학적 선언서”라고 나온다. 일반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 애매하다. ‘신조’의 뜻은 『교회용어사전』에 “신앙의 핵심 내용(기독교 교의)으로서, 교회에서 공식적이고 권위 있게 가르치고 고백하게 해야 할 참된 진술”이라고 나온다.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교인이 지켜야 할 내용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조항 중에는 정부당국이 풀어야 할 것들도 여럿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0)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고율적 누진법의 제정, (11)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 보험법의 제정, (12) 일요일 공휴법의 제정, 보전에 관한 입법 및 시설 등이 그렇다. 정부당국에 이같은 입법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신조’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신조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2) <사회신조>는 발표되었나

전술했듯이 1932년 9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제9회 회의록」 52쪽에는 ‘朝鮮基督教聯合公議會社會信條草案’이 실려 있다. 그런데 ‘草案’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채택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 ▶ 제9회 임원. 6. 사회부 위원: 김활난, 채부인, 리효덕, 김응규, 최활난, 니클쓰, 김득수, 라태일, 이순규(5쪽)
- ▶ 사회부 위원부장 김활난씨가 별지(제9호)와 여히 보고와 청원하매 하력하기로 가결하다(16쪽).
- ▶ 별지 제9호 사회부 보고: 3.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 초안은 그대로 채용하여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신조로 삼기로 청원함. 위원장 김활난, 서기 리효덕(51쪽)

이로써 <사회신조>의 채택은 확인된다. 그런데 『기독신보』 1932.09.21. 「연합공의회 개회」를 보면 9월 16일 평양신학교 강당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제9회 총회의 결의안이 “(1) 만주에 1,500 예산으로 전도할 일 (2) 일본선교는 여전이 계속하기로 (3) 조선내지에 교회진흥운동하기로 (4) 본회 규측 개정하기로 (5) 내회 장소 경성 새문안교회내에서 (6) 내회일자 1933년 9월 19일 오전 9시로”라고 나온다. <사회신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후 기사에서도 찾을 수 없다. ‘채택’은 확

2) 한경직은 ‘사회적 신조’라는 표현을 썼다(한경직, 「기독교의 사회적 신조」, 『신학지남』 15-3, 신학지남사, 1933, 48쪽). 강연자는 백낙준의 「한국기독교회의 사회신조」(『한국교회사학회』 1, 한국교회사학회, 1979)를 참조하려 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연결되지 않아 실패했다.

인되나 ‘발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신조>를 널리 알리는 데 『기독신보』만큼 좋은 매체가 있었을까. 연합공의회측에서 『기독신보』에 상세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기독신보』에서 누락시킨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쉽다.

3) 연합공의회는 <사회신조>의 실현을 위해 당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사회신조> 조항의 실현을 위해 연합공의회가 이후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확인되어야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반드시 연합공의회 차원이 아니더라도 소속 장로교·감리교 측이 벌인 활동이라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신조>는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연합공의회 후신인 NCK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신조>에 나오는 조항들과 유사한 활동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곧 <사회신조>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신조>가 없었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NCK가 생산한 문건들 중에서 <사회신조>가 얼마나 언급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후대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사회신조> 채택의 시대적 배경

1932년 9월 <사회신조> 채택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 몇 가지로 유추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이다. <사회신조>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하나님을父로 人類를 兄弟로 信하며 基督을 通하여 啓示된 하나님의 愛와 正義와 平和가 社會의 基礎的 理想으로 思하는 同時에 ㉠ 一切의 唯物教育, 唯物思想, 階級的 鬪爭, 革命手段에 衣한 社會改造와 反動的 彈壓에 反對하고 進야 基督教 傳道와 教育及 社會事業을 擴張하여 基督贖罪의 恩赦를 받고 更生된 人格者로 社會의 中堅이 되어 社會組織體 中에 基督精神이 活躍케 하고 ㉡ 모든 財産은 神께로 받은 受託物로 알아 神과 人을 爲하여 供獻할 것으로 信하는 者이다.

“一切의 唯物教育, 唯物思想, 階級的 鬪爭, 革命手段에 衣한 社會改造와 反動的 彈壓에 反對(㉠)”, 이것이 첫번째 배경일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은

이미 1920년대부터 꾸준히 전개되었으며, 193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기독교인 출신의 사회주의자도 여럿이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였다. 다음 기사에서도 기독교계의 우려를 엿볼 수 있다.

- ② 만일에 교회가 농촌신도들에게 생활문제에 대한 실제적 충고를 주지 않을 것이면 머지않는 장래에 공산주의로 화하게 될 것이니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는 그 문제를 해결케 되지 못하게 됨으로써다. 그리스도교는 이를 해결하여 주지 못할까? 문제는 여기로 쏠린다.³⁾
- ③ 전에는 교회의 문으로 모혀들든 젊은이들이 모두 공산계통의 모함에 밀려가고서 도려려 교회를 저주하고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 요컨대 조선청년들이 대개 사회주의에 끌리어 종교와 교회를 미워하고 그 사상이 도도이 유물론적으로 빠져서 거이 무종교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교의 현재와 장내에 큰 타격이요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⁴⁾

둘째, 교회 재정의 악화이다. “우리는 … 모든 財産은 神께로 받은 受託物로 알아 神과 人을 爲하여 供獻할 것으로 信하는 者(㉔)”란 대목에서 그 점이 엿보인다.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 ④ 우리 교계에 있어서는 1931년이 경제계에 가장 많은 타격을 준 해이다. 각 선교부로서 조선교회를 위하여 호의로써 보조하여 주던 금액이 몇부분씩 다 삭감하여서 교회와 및 교회단체 각 기관에서는 공황 중에 지내게 되었다. 사업을 축소하느니 인원을 정리하느니 경영하든 잡지를 정지하느니 하여 경제상으로는 한 수난시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⁵⁾

세계대공황(1929-1933)의 여파로 해외선교부의 후원이 삭감되는 등 교계 재정이 악화된 것은 심각한 현실적 문제였다. <사회신조> 조항 중 헌금에 대한 것은 없으나, 서문에서 “모든 財産은 신께로 받은 受託物”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재정의 악화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예컨대 장로교 목사의 평균연봉은 1920년 362.46원에서 1930년 354.22원, 조사의 평균연봉은 164.58원에서 134.50원으로 감소했다.⁶⁾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강연자는 1920년대 개신교 농촌운동의 전개

3) 사월, 「사경회와 농촌문제」, 『기독신보』 1930.12.03.

4) 전영택, 「현대교회는 조선을 구할 수 잇을까㉔」, 『기독신보』 1931.11.11.

5) 『기독신보』 1932.01.13. 「(사설)교회의 신전망㉔」.

6)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34쪽.

배경으로 ① 농촌경제의 악화와 농촌교회의 침체 ②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과 민족주의자들의 실력양성운동의 영향 ③ 기독교인들의 자본주의 비판과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④ 개신교계 대표들의 예루살렘국제선교대회 참석과 덴마크 농촌 시찰 등을 거론한 바 있는데, ①은 교계 재정의 악화, ②는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과 같은 맥락이며 ③과 ④도 <사회신조>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사회신조>를 초안한 연합공의회 사회부 위원장 김활란은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에도 참석한 바 있었다.

이같은 점은 <사회신조>가 채택되었다는 1932년 『기독신보』의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같은해 교계에서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것 같으며, 이같은 위기의식이 <사회신조> 채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 김창제, 「헌하 조선기독교운동의 방향은 어디로」, 『기독신보』 1932.01.20.
- ▶ 전영택, 「교회가 현재조선을 구하라면」, 『기독신보』 1932.01.20., 01.27., 02.10, 02.17.
- ▶ 박연세, 「조선기독교회는 개혁을 요하는가? 諸家見」, 『기독신보』 1932.01.27., 02.03.
- ▶ 서운이, 「교회와 사회」, 『기독신보』 1932.01.27., 02.03, 02.10.
- ▶ 김병제, 「조선기독교회는 개혁을 요하는가? 諸家見」, 『기독신보』 1932.02.10.
- ▶ 이경선, 「조선기독교회는 개혁을 요하는가? 諸家見」, 『기독신보』 1932.02.17., 03.02, 03.09.
- ▶ 이학봉, 「반기독교운동의 대책」, 『기독신보』 1932.03.16.
- ▶ 박유병, 「경제운동과 종교운동에 대하여」, 『기독신보』 1932.03.30., 04.13.
- ▶ 백승건, 「경제공황과 기독교」, 『기독신보』, 1932.04.27., 05.04.
- ▶ 「(사설)자력갱생의 첫길」, 『기독신보』 1932.08.10., 08.17.
- ▶ 오성근, 「조선의 기독교는 어디로」, 『기독신보』 1932.09.14., 09.21., 09.28., 10.05., 10.12., 10.19

4. <사회신조>의 역사적 의미

<사회신조>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처럼 언급한 바 있다.

- ㉟ 남녀동등·여성교육·노동시간·협동조합·노동조합·최저임금법·소작법 등 구체적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이 표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단순한 교회연합협의체에 그치지 않고 농촌운동·절제운동·사회사업 등에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신학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⁷⁾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강연자가 선행연구를 참조해서 썼던 것 같다.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부담없이 이같은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구체적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이 표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

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개정판)한국기독교의 역사⑩』(기독교문사, 2012), 213쪽.

만 전술했듯이 이후 기독교계가 그 실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연합공의회나 NCKK에서 생산한 문건들에 <사회신조>가 얼마나 언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운동·절제운동·사회사업 등은 <사회신조> 채택 이전부터 전개되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12개 조항 중 당시 교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을 조항은 무엇이었을까.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연자는 (ii)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보험법의 제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최저임금’·‘물가’·‘집값’·‘사회복지’ 등이 주요 화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1932년 기독교계에서 최저임금법이 거론되었다는 점은 놀랍다. 하지만 당시에도 그 전후에도 교계에서는 노동문제에 대해 냉담했다. 그럼에도 대체 어떤 복안을 갖고 최저임금법과 사회보험법을 포함시켰는지 궁금할 정도이다. (ii) 중에서도 백미는 소작법이다. <사회신조> 채택 직전에 나온 아래 기사가 참조된다.

㉔ 농촌진흥문제는 요사이에 가장 백열화하여 가지고 있다. 신문잡지에서 총주력하여 농촌문제에 대서특서로 집필을 하고 강단에 선 사람은 농촌문제를 빼어놓면 말문이 막히리만큼 되어 있고 ...⁸⁾

실제로 당시 기독교계의 최대화두는 농촌교회의 농촌교인의 갱생을 위한 농촌운동이었다. 농촌의 교회와 교인이 조선기독교계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신조>에는 ‘농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대신 ‘소작법’으로나마 간접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교계에서 소작제도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뜨거운 감자’였다. 교인뿐 아니라 교회가 지주인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계에서 내놓은 대책이란 것은 ‘소작법’과는 거리가 먼, 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지주들의 자발적 선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㉕ 나는 조선의 오날을 당하여 농업방법 개량의 필요를 부르짖는 것보다 먼저 쇼작인과 농주간에 반드시 다할 의무를 痛論하러 한다. ... 원컨대 농주는 쇼작인에게 대하여 도디를 맞지 말고 농작물을 반식 난호라. 그리하여야 쇼작인이 흉년에도 그 생활을 계속하리라.⁹⁾

㉖ 우리 그리스도교인 중에 디주된 이가 있다 하면 이에 크게 각성할 필요가 있다. ... 쇼작민에게 쇼작료를 과중하게 맞지 말 것이오 쇼작인을 보호하는 뜻으로 쇼작료를 경감하여야 하겠다.¹⁰⁾

8) 『기독신보』 1932.08.24. 「(사설)농촌전도의 급무」.

9) 『기독신보』 1925.06.17. 「(사설)「쇼작인과 농주의 의무」」.

10) 『기독신보』 1928.04.11. 「(사설)기독교인된 자작농민과 지주의게 一肅하노라」.

㉑ 농촌사회의 주요 개선책으로 첫째, 지주의 각성, 둘째, 지주의 사명, 셋째, 지주회의 조직과 실행사항을 말한 것이다. … 하늘이 주신 이 락토의 지배권을 각 지주에게 대표로 신임하여 맞기신 것이니 지주는 절대으 지주가 안이라 원소유자이신 천부의 분정하신 집사직을 받은 자이다. 엇지 그 받은 집사직에 불충할 바 있을 것이라.¹¹⁾

효과를 거두었을 리 만무하다. ‘돈’과 ‘땅’ 앞에서 때로는 신앙도 무력하다. 교계에서는 지주의 선처에만 의존했다. 지주와 소작인의 입장이 같을 수 없다. 다음은 그같은 사례이다.

㉒ 안동군 풍산면 하리동 야소교회 장로 某씨는 該教 신자가 풍산소작인회에 가입하였다고 우리 야소교 신자는 다른 단체에는 참가못한다고 하고 풍산농무회에 입회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풍산조장인회 위원 이만씨가 該교회에 출장하여 장로 某를 보고 엇지하여너희 야소교 신자는 다른 단체에 가입 못하느냐고 질문하였드니 敎理가그러하니 부득이 그러케 한다 함으로 그러면 농무회에는 입회하여도 관계업느냐고 강경히 질문하였으나 장로는 그 말에는 다변이 없었다고.¹²⁾

중고등학교 때 국사시간에 배운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을 보면 정전론(井田論), 균전론(均田論), 여전론(閭田論), 한전론(限田論) 등 여럿이지만 실현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애초부터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권한도 책임도 없는 재야(在野) 선비들의 탁상공론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토지에 이같은 개혁론을 적용했다는 실학자를 강연자는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소작문제에 대한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미담 사례도 찾지 못했다. <사회신조>의 역사적 의의를 밝혀야 하는 자리인데 아직 강연자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죄송스럽다.

5. 맺음말

<사회신조>가 설령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그 의미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분석과 자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NCCK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회신조>에 깔린 시대적 소명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선명히 드러내어야 하는데 강연자의 역량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해 죄송스럽다.

11) 『기독신보』 1931.10.21. 「농촌사회사업(지주의 봉사)」.

12) 『동아일보』 1925.11.18. 「“우리敎 신자는 다른 단체에 불참”」.

다소 생뚱맞지만, 강연자의 경험 한 토막을 소개하며 맺고자 한다. 국민학교 시절, 어머니날이 되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늘 뻘한 내용이었다. 편지지 한 장 정도를 억지로 메꾼 내용의 전반부는 예전에 이래저래 잘못했다는 뉘우침, 후반부는 앞으로 이리저리 잘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매년 그 구성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다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아들이 어버이날에 쓴 편지를 받는다. 뉘우침과 다짐, 매년 같은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그 다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 모두 판박이었다. 어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아닐지.

그렇다고 해서 어버이날 쓰는 편지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작심삼일'이라도 3일은 효과가 있었다. 강연자가 그랬듯이 아들도 쓸 때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이후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강연자가 느꼈듯이 어머니도 아들이 쓴 편지를 보고 잠시나마 기특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의미와 효용이 있다. 지키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다짐하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부디 오늘 학술심포지엄이 1932년 연합공의회의 <사회신조>를 비롯한 한국기독교계의 '신앙고백'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강연자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감사하고 존경해 온 NC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복음을 더 잘 이해할 때까지

가톨릭 사회참여 여정을 통해 본 <사회신조>

‘NCKK 사회신조 채택 9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초대받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깨달은 것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교회에 대해 무지했다는 새삼스러운 사실이었다.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그리스도인 일치 아카데미’를 위해 기독교회관에 드나들었고 노동문제 등 사회 현장에서 솔하게 만났던 인연임에도 그렇다. 그러면서 교파와 교회 중심적 선교에서 벗어나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지가 NCKK의 전신이자 최초의 기독교 연합기구였던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출범 단계부터 자리 잡고 있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간 근대화와 일제 강점, 민주화운동 시기를 지나오며 기독교가 사회참여의 귀감이 되어왔던 이유를 깨닫는 대목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1932년 채택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는 최초의 사회참여에 대한 초교파적 결의라는 역사적 위상 외에도 그 자체로 이미 기독교 사회참여의 여정을 일정부분 추동한 정신적 토대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사회신조에 대해 논할 용기는 도무지 없다. 다만 초대된 사람으로서의 몫은 다해야 하겠기에, 교회의 사회적 책무라는 그리스도교 공동의 과제를 한국 천주교회는 어떤 시간을 통해 깨달아 왔는지 소개하는 것으로 ‘사회신조’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데 미력한 영감이라도 보태고자 한다.

1. 1932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와 1932년 「한국교회 공동 지도서」

1932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내놓은 12개조의 ‘사회신조’는 실천 여부를 떠나 여러 면에서 동시대 한국 천주교회와 견주어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1928년 일본 기독교연맹의 ‘사회신조’나 1930년 기독교조선감리회의 ‘사회신경’ 같은 이전 신조들의 반복이거나 항일정신 등 역사적 구체성 또한 담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을 테지만 일제 강점이라는 동일한 정치적 압력을 견디고 있던 한국 천주교회의 관심사와는 그 구체성에서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근대주의와 힘겨운 전투를 치르며 ‘바티칸의 포로’를 자처할 정도로 ‘새로운 모든 것’을 거부한 채 문을 걸어 잠갔던 가톨릭교회는 1910년 즈음부터 기지개를 켜

고 세계선교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었다. 교황청은 세계선교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포교성성(Propaganda Fide, 1622년)의 지침을 새롭게 조명하며 자립을 전제로 한 '지역교회' 건립에 공을 들였고(1926년 6명의 첫 중국인 주교 서품, 1927년 첫 일본인 주교 서품),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선교지에 국가별(Concilium Plenarium), 또는 지역별(Concilium Provinciale) 공의회를 권고했다.

이러한 기조 속에 1924년 중국 상하이와 일본 도쿄에서, 한국에서는 7년 뒤인 1931년(9월 13일-26일) 지역공의회가 개최되었다. 1931년은 공교롭게도 조선 대목구가 설정된 지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했다. 공의회 결정 사항인 공의회 교령(costitutio)은 이듬해 3월 15일 곧장 교황청 승인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26일 조선 내 5개 선교지(서울/대구/원산 대목구, 평양/연길 지목구)에 동일하게 적용될 일종의 선교 지침서인 「한국교회 공동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가 발표되었다. 지도서는 이전의 선교지별 시노드의 결정들(1857/1868/1884년 조선대목구, 1921년 대구대목구, 1922년 서울대목구)과 비교해 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전까지 파리외방전교회가 독점하던 조선 선교지에 다양한 국적의 선교회들(독일 오틸리엔 베네딕도회, 미국 메리놀외방선교회)이 진출함으로써 선교 방향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었다. 지침서는 1958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일부를 수정해 재출판한 후 1983년 보편교회 차원의 새로운 교회법에 따라 1995년 「한국 천주교회 사목 지침서」가 새롭게 마련되기 전까지 한국 천주교회 유일의 지침서로서 실질적 '지역교회법'에 다름 아니었다.

지도서는 그러나 총 542개 조항, 서언과 부록을 포함해 7부(1. 증진해야 할 신앙에 관하여, 2. 품행의 규율에 관하여, 3.경신례, 성사, 축복 그리고 금육과 금식에 관하여, 4. 성직자와 교회의 세속 재산에 관하여, 5. 세속 재산에 관한 서울 공의회 결정)로 구성된 방대한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세속 생활 또는 사회적 성격의 지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고아 구제를 목적으로 한 '성영회' 활동(102-107조), 세계적 평신도 운동인 '가톨릭 액션'과 그리스도교 사상을 사회에 올바르게 소개하기 위한 가톨릭 출판 사업(63-110조), 정부 당국(167-169조)과 세속 사안(170-176조)에 있어 성직자가 취해야 할 처신 정도가 모두이다. 마지막 주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와 같은 세속 사안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교회의 전통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별히 설과 추석 등 명절을 기해 지역 통치자들을 방문할 것과 청결을 중요시하는 일본인의 문화를 고려해 거주지와 의복을 항상 깨끗이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일제 강점이라는 정치적 특수성을 염두에 둔 지침이 눈에 띈다.

지도서는 물론 교회의 모든 일상과 관련된 규범으로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서 '결의'나 '선언'처럼 구체성과 시의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과는 목적과

성격에서 분명 다른 결의 문헌이다. 하지만 ‘사회신조’가 발표되던 즈음 한국 천주교회의 공적 발언을 살펴볼 거의 유일한 단서로서 남녀의 동등한 지위, 소년 노동금지, 공창 폐지, 최저임금제, 누진법 제정, 소작법 개선 등 조선이 처한 현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기독교의 현실감각과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반면 지침서만 두고 보자면 천주교회는 선교사 없이 한민족 스스로 세웠던 신앙공동체라는 자랑거리가 무색하도록 이식된 외래 종교의 전형적 피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세계를 바라보는 교회의 창(窓), 사회교리

그렇다면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세상과 무관한 뜬구름 속에 살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불변의 속성을 지닌 믿을 교리(Dogma)와 더불어 교회는 인간 생활 일반에 대해서도 공적으로 가르쳐왔다.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을 ‘믿을 교리’라 지칭한다면 그것의 실천과 관련된 내용들은 ‘행할 교리’, ‘사회교리’(Social Dogma, Social Teaching)다. 후자의 영역은 인간 생활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인간으로 출발해 가정, 공동체, 사회, 경제, 국가, 국제 상황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사실 사회교리는 초세기부터 존재해왔다. 그 원천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성서다. 그 밖에 교부들의 강론과 저작, 공의회 문헌, 교구장 사목교서와 담화, 교황 문헌과 강론, 라디오 메시지, 본당 사목자의 강론 등 거의 모든 공적 가르침이 사회교리의 토대가 된다.

언어는 구체적 사안을 다룸에도 보편적이다. 이미 현상이나 문화로 자리 잡은 현안을 다루는 후속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리’라는 단어가 내포하듯 현실을 분석하고 해석할 일종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때때로 사안의 위중과 시급성에 따라 매우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별히 전통사회가 소멸한 후 산업화 사회로 이행하던 19세기 말엽부터였다. 별도의 문헌을 통해 사안에 대한 분명한 적시와 함께 구체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보편교회 차원에서 보자면 ‘최초의 사회교리 문헌,’ ‘노동현장’으로 불리는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레오 13세, 1891년), 노동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사십주년」(Quadragesimo, 비오 11세, 1931년), 무솔리니와 파시즘을 비판한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Non abbiamo bisogno, 1931년), 공산주의를 단죄한 「하느님이신 구세주」(Divini Redemptoris, 1937년), 나치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를 비판한 「크나큰 슬픔으로」(Mit brennender Sorge, 1937년)가 그렇다.

중세 세계관의 붕괴, 전통적 권위의 종말, 국가주의의 약진, 정교융합에서 정교

분리로의 이행으로 대표되는 근대 이후 교회의 세상에 대한 태도는 수세적이며 적대적이었다. 스스로를 ‘완전한 사회’(Societas Perfecta)로 정의하던 교회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문화투쟁(Kultur Kampf) 등 밀려드는 ‘근대’를 상대하기 위해 손에 쥔 것은 ‘근대오류목록’, ‘무염시대’(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황의 무류성’과 같은 중세적 테제의 낡고 빈약한 무기뿐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주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병폐를 고발하는 「새로운 사태」는 과거에 비해 그야말로 ‘새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한계 또한 분명했다. 근대에 대한 전환적 이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교회로부터 더는 답을 찾지 않는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 진영으로 떠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 전통적 방식의 애국, 자선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깨달음과 악을 생산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구조적 이해는 이후 사회교리의 핵심이자 정초로 자리매김했다.

3. 사회교리의 수용(reception)

보편교회의 이러한 변화 속 한국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사회교리 수용사의 이론적 측면만 보자면 한국 천주교회는 보편교회의 흐름에 꽤 충실했다고 평할 수 있다. 1937년 회칙 「하느님이신 구세주」가 로마에서 발표(3월)되고 불과 3개월 만에(7월) 전문을 번역해 「경향잡지」를 통해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할 정도였다. 교회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한다는 목표로 전국 5개 선교지가 공동 창간한 월간지 「가톨릭 청년」(1933년 6월-1936년 12월)의 경우는 세계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새로운 사태”를 비롯한 가톨릭 노동관에 근거해 노동자들의 권리, 소유권의 사회적 책임,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불의, 사회주의 계급투쟁의 오류 등을 명시적으로 비판했다. 평양 대목구에서 발간한 「가톨릭 연구」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개인 구령만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에 기초한 직접적 사회참여를 독려했다. 유럽의 ‘가톨릭 액션’을 소개하는가 하면 평신도의 사회적 투신을 강조했다. 1906년에 발간되어 강제 병합 후 1910년 일제에 의해 폐간되기까지 총 220호를 발간한 주간지 「경향신문」의 기사는 「대한매일신보」가 여러 번 전문을 옮겨와 실을 정도로 일반 독자에게도 인기가 좋았다. 강제 병합에 대항한 국권 회복 운동과 뜻을 모아 애국계몽운동에 힘을 쏟았고 초등교육, 여성교육만이 아니라 실업교육과 같은 실용 학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화만이 민족적 자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강조했다.

해방 후 속간되거나 새롭게 창간된 가톨릭 매체들은 사회교리 보급이라는 본디 사명에 더해 좌우 이념 대립으로 혼란스럽던 해방 정국 속에 자신의 논조와 주장

을 보다 분명히 해나갔다. 신탁에 반대하는가 하면 국제연합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지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우익을 대변하긴 했지만, 좌우 이념을 동시에 비판하던 사회교리 노선 덕에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뒤로 갈수록 제1공화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경향신문의 경우 4·19혁명 한 해 전 폐간 처분되지만, 여기에는 정권을 향한 경향신문의 독재에 대한 우려와 비판 외에도 정치 참여에 극도로 소극적이었던 이전의 태도에서 장면(張勉, 1899-1966년)을 비롯한 가톨릭을 대변할 정치인들을 전폭 지원했던 천주교 내부의 변화도 한몫했을 것이다. 바티칸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탈리아 신생 정부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조차 선거 참여를 금지했던(회칙 Non expedit, 1868, 1919년) 태도에서 1929년 라테란 조약을 계기로 ‘가톨릭 액션’에 대한 후원과 가톨릭 신자들의 정계 진출, 선거 참여를 장려했던 교황청의 변화도 일정부분 이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911년에 창간된 「경향잡지」는 사회교리 소개뿐만이 아니라 건국과 선거 참여 등의 정치 분야와 노동자 문제, 사회질서 재건에 관해 보편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해 교회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눈여겨볼 것은 1950년대 공장에 들어가 여느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일과 후에는 노동자가 밀집한 빈민촌을 사목했던 ‘노동사제’(Prêtre ouvrier)와 같은 서유럽 교회의 실험적이고도 급진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여러 차례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54년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 제재가 시작되어 1959년 결국 해산되긴 했지만, 한때 프랑스에서만 150명에 이르렀던 노동사제들에 대한 보도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향잡지」에 대한 교회 내 반응은 놀랍도록 싸늘했다. 혼란스러운 해방정국 속 세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일반 독자층을 두텁게 거느렸던 반면 교회 내 독자는 극히 드물었다. 1948년 기준 발행 부수 3,000부 가운데 단 26부만이 교회 내에서 소비되었으니 말이다.

4. 망월경과 현미경, 이론과 실제

이러한 소극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사회교리가 적극적으로 보급되고 사회참여가 독려 되었어도 그것은 망월경으로 조망한 전체 구도일 뿐 현미경으로만이 파악되는 실제와는 다른 것이다.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깊다. 이러한 소극성, 또는 언행의 모순성은 이전 시대의 역사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15년 ‘포교규칙’을 시작으로 펼쳐진 일제의 종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모든 종교단체의 법인화와 주장들의 일본인화를 정점으로 패전까지 지속되었다. 1941년 「경향잡지」에는 “국민총력”난이 개설되었고 교회는 ‘천주교회 결전대회’, 전승기원회, 전쟁 강연회, 조선 신궁 참배 등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부역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상황만으론 기독교와 비교해 천주교계의 미온적이거나 아예 없었다고 말해도 좋을 3.1운동에 대한 참여나 이후의 항일을

포함 전무후무하다시피 한 사회참여 활동이 모두 설명되진 않는다.

여기에는 한국 천주교회 특유의 구조적 특수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사실상의 종교 자유가 찾아온 조선에서 교회를 재건한 주역들은 파리외방전교회였다. ‘대리감독제’(대목구, Vicariatus Apostolicus)는 자립 지역교회라 할 수 있는 ‘교구’(Diocesis) 이전의 선교체제로 일정한 지역을 한 선교회가 독점적으로 맡도록 하는 제도이다. 파리외방전교회는 1920년 독일 베네딕도회가 원산대목구를 맡기 전까지 반세기 이상 한국 천주교회 전체를 책임진 유일한 선교회였다. 프랑스 혁명부터 나폴레옹, 구체제 복원 이후 나폴레옹 3세까지 강제 해산과 복원을 반복했고, 프랑스식 라이시테(laïcité) 관념 아래 1905년부터 지속해서 이루어진 적대적 방식의 ‘정교분리법’을 경험한 이들로 선 교회 존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교회의 정치적 패배와 다를 바 없는 적대적 방식의 정교분리를 경험한 뮈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서울 대목구장: 1890-1933년)을 비롯한 당시 교회지도부가 강박했던 ‘선교의 순수성’이라는 비정치적 노선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불의한 체제에 대한 묵인과 협력이라는 매우 정치적 노선으로 귀결되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교회 보존과 혼동한 것이고, ‘지역문화 적응’이라는 선교 원칙을 ‘체제 적응’으로 오해한 셈이다. 일제 강점이라는 기형적 선교 지형 속에 선교 현장은 보편(보편교회의 가르침, 사회교리)을 구체로, 이론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역부족이었다.

5. 사목(司牧)의 확장

근대 도래 이후 첨예해지기만 하던 교회와 세상, 종교와 정치, 성과 속의 이원론을 가톨릭교회가 ‘이론적’으로 극복한 것은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에 가장 다양한 국가의 교회가 참여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년)에 이르러서다. 공의회 문헌 중 가장 길고 가장 오래 토론되었으며 가장 마지막에 채택된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을 통해 교회는 “인류의 역사와 깊이 결합되어있다”고(2항) 고백했다. 공의회 모토 가운데 하나인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는 따라서 신앙 표현방식의 현대화나 교회 자신만의 쇄신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낮게, “역사를 더욱 인간답게”(40항) 만드는 일이다. 현실은 단순히 교회가 처한 환경만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이자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장소인 셈이다. 교회의 할 일은 그러므로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11항) 것이다. 지금까지 성사집행과 신자방문 정도로 폐쇄적으로 이해되던 사목의 지평이 인간의 모든 생활, 현실 전체로 확장된 셈이다. 더러는 이를 두고 ‘반종교개혁과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포기’라고 정의하거나 교회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견했다.

이 대전환 앞에 한국 천주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국 천주교회 총람」

(2003년)에 수록된 18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교회의 명의로 발표된 발언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895년부터 1962년 공의회 이전까지 9번에 이르는 공적 발언 중 대사회적 성격의 메시지는 4개다. 하지만 모두 산아제한 정책에 대한 입장처럼 ‘생명 존중’이라는 교회의 전통적 관심사를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선언, 성명, 입장, 담화, 공동고서 등 다양한 형식으로 1962년부터 1974년 이전까지 발표된 메시지들의 성격은 사뭇 다르다. 총 12개 중 전례개혁 등 공의회 가르침의 보급과 학습을 독려하는 3개의 메시지 외에 대사회적 성격의 발언은 총 6개다. 이 가운데 전통적 관심사(임신중절, 모자보건법, 국민 우생법)와 관련된 2개 외에 나머지 4개는 사회정의, 노동자 권익 옹호 등 이전까지의 공적 발언에서 찾아볼 수 없던 성격의 메시지들이다.

이 가운데 공의회 후속 작업을 책임지던 바오로 6세가 1967년 개발도상국 등에서 벌어지는 군부독재와 인권침해 등을 고려해 발표한 회칙 「민족들의 발전」(Progressio Popolorum)과 공의회 후속 기구 중 하나였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총회 주제였던 ‘세계 정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우리 사회의 신조”, 1967년) 외에 주목할 것은, 1967년 7월과 이듬해 2월에 발표된 한국 천주교회가 처음으로 노동 문제에 직접 개입한 사건이자 최초의 사회 참여로 기록된 “강화 심도직물 사건” 관련 성명이다. 1965년 강화 본당 주임 메리놀외방선교회 소속 전미카엘(M. Bransfield) 신부를 중심으로 조직된 ‘가톨릭노동청년회’(Jeunesse Ouvriere Chretienne, 1925년 창립, 1958년 한국 도입) 회원들이 ‘섬유노조 심도분회’를 조직하자 회사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이들 일부를 해고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지역 여당 국회의원, 경찰서장을 등에 업고 본당 주임을 용공으로 몰아세우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채용하지 않기로 강화 직물업자들이 공동 결의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가 가톨릭노동청년회 한국 총재 주교였던 마산 교구장 김수환 주교(후일 추기경)와 함께 이끌어낸 주교단 최초의 현실 참여 발언이었다.

심도직물 사건을 비롯해 공의회 폐막 이후 교회의 전통적 관심사 밖의 사회적 성격의 메시지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한국 천주교회는 적어도 이론적 차원에서만은 보편교회가 노정하는 공의회 후속 작업과 그 정신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미의 메데인, 푸에블라 주교회의(1968, 1979년)의 결정들과 해방신학과 같은 공의회 정신의 능동적, 창조적 수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에 가까운 것이었고, 참여 주체와 깊이에서도 김수환을 비롯한 교회 지도부 일부의 역량에 의지한 것이었으며 ‘선언’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1967년 한 기고문(「사목」 2, 1967년)을 통해 전례개혁을 비롯한 공의회 결정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한국 천주교회의 분위기를 ‘맹목적 순응’이 아닐까 반문했던 사제 김수환의

심증이 여전히 유효했던 셈이다.

6. 공의회 이후의 ‘공의회’

1974년, 지금까지의 이러한 모든 ‘구조’를 해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1974년 지학순 주교의 구속과 양심선언이다. 사건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고 당시 한국 천주교회가 얼마나 응집된 시간을 살았는지는 이 시기 주교단의 공적 발언 횟수만 봐도 확연해진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주교단 공동명명의 메시지는 총 26개다. 이 가운데 16개가 1974년부터 1976년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 16개 중 14개가 지학순 주교 관련이거나 대사회적 성격의 메시지들이다. 14개 가운데 구속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4개인데 처음 3개의 메시지는 열흘 남짓 정도의 간격으로 일정하게(7월 10일/7월 25일/8월 6일) 발표되었지만, 나머지 하나만(10월 18일) 늦다. 형식 또한 ‘경위서’에서 ‘선언문’, ‘성명’으로 바뀌어 나갔다. 사건의 추이에 따라 주교단의 입장도 진화한 것이다. 내용도 구속된 주교의 구명과 해명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결의로 확장되어 나갔다. 다시 말해 용공이라는 호도에 대한 해명의 소극적 태도에서 당시 한국 사회의 폭압적 현실에 대한 성찰과 고발로 변화해 나간 것이다.

그러나 진화한 것은 주교단만이 아니었다. 실제로 앞선 성명들과 마지막 성명(10월 18일) 사이 2달의 간격이 있는데 그사이 ‘전국평신도협의회’를 비롯한 교회 내 여러 주체는 주교단의 조속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고 사제들의 경우 긴 숙의 끝에 독자적으로 활동(1974년 9월 2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제1 시국선언)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 시간이 어떤 농도의 시간이었는지 한 사제는 이렇게 회고했다. “주교 구속 사건은 닫힌 성소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현실이라는 광야로 끌어냈다. 현실이 우리를 끌어냈건 또는 우리가 현실이라는 광야로 뛰어들었건, 이 사건은 교회로 하여금 깨어 있는 눈으로 한국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영성의 눈을 뜨게 하였다.”(“암흑속의 햇불” 3, 1997)

공의회의 수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주교 구속과 양심선언은 지금까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던 공의회 정신이 문자와 선언을 넘어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초대해 준 것이고, 교회의 사회운동적 측면에서는 적어도 사태에 연류된 주체들로 하여금 관념적 인식에 머물던 공의회를 한국의 현실이라는 ‘맥락’ 안에서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만든 사건이었던 셈이다. 이 사건이 가진 자생적 추동력은 특별히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이후의 현실 개혁에 참여한 ‘교회’가 더는 지금까지와 같은 질서 정연한 단일체가 아니라 사건을 직면한 직접 당사자들, 다양한 주체들의 ‘교회들’이었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실제로 전후 시기 원조와 복구사업에 힘을 쏟던 가톨릭구제회와 인성회, 나환자들을 위한

돌봄사업(가톨릭나사업), 고아원과 탁아소, 농촌 가게를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 자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운동과 같은 시혜적 틀에서 이어지던 교회의 전통적 사업들은 보다 사회 구조적인 개혁이 강조된 사업들로 분화, 발전해 나갔다. 이를테면 1958년 도입되었지만 신심 단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던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심도직물 사건을 거치며 ‘사회 사도직’ 역량을 되찾았고 1967년 가톨릭농민회로 분화해, 이후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환경운동 등 신자유주의와 환경파괴 등 다양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나갔다. 경향각지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마다 노동자들의 일종의 쉼터이자 상담소인 “노동사목”이 세워졌다. 1979년 인천 부평을 시작으로 1992년에는 18개소까지 달했다.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지학순 주교 사건은 유신 체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총체적 저항의 시발점으로 평가되지만, 정치권력과 교회의 전면적 대립이라는 초유의 경험은 이후 교회 내에 공의회를 둘러싼 이념적 선입견을 형성하는 데 일정부분 이바지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교회의 현실 참여를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로 귀결되었다. 언젠든 국가 권력과의 불화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의회는 여전히 ‘해석’되어야 하며 완결된 사건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모습의 ‘공의회들’로 지속되어야 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7.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된 처지에 제 집안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기독교에 대한 무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에 관해 논할 학문적 감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더 큰 까닭은 “세상과의 대화”(바로 6세)라는 ‘선언’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구체적 실재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를 통해 오늘에 ‘사회신조’가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고 싶어서다.

물론 ‘사회신조’는 서언의 농후한 반공주의적 노선이나 구체적 실천의 부재, 항일에 대한 의지의 결여 등 그시대 신앙인들이 감당했던 역사적 부침과 한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공의회’가 지난한 시간을 지나 역사로 고백 되고 조금 더 잘 이해되게 되었던 것처럼, ‘사회신조’라는 ‘상징’도 동시대 교회 여정의 ‘완주’를 의미하기보다는 술한 내용과 부침을 겪고서야 언젠가 도달하게 될, 또 여전히 걸어야 할, 저 꼭대기에 미리 꽃힌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깃발인 셈이다.

이탈리아 철학자 아감벤(G. Agamben)에 따르면 진정한 ‘동시대인’이란 자신의 시대를 경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속해있음을, 그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자다. 그 시대가 뿜어내는 빛에 눈이 멀지 않고, 그러면서도 오늘의 두터운 어둠을 응시하고 어제 또는 내일이 뿜어내는 빛을 좇는 이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시대착오’는 모든 동시대인이 자신의 시대와 맺는 관계 방식인 셈

이다. 비록 친일의 굴레에 붙들렸지만, 김활란은 그리고 사회신조를 만든 초안자들은 그런 ‘빛’을 알아본 눈 밝은 ‘동시대’인이었다. 신조는 따라서 여전히 시대와 불화해야 하는 오늘의 교회에도 ‘빛’인 셈이다.

공의회를 시작했지만, 그 완성을 지켜보지 못한 요한 23세는 선종 직전 가까운 이들에게 공의회를 이렇게 회고했다. “내가 공의회 개막 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변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맥락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여전히 읽어야 할 ‘육화된 말씀’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함께’ 읽어내야 할 복음이다. NCCK를 비롯한 형제들과 여전히 이 여정에서 함께 만나길 기도한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에 대한 윤리적 평가

1. 들어가는 말

한국 개신교가 수용과정 또는 토착화과정¹⁾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두 교단을 주축으로 형성 그리고 발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18년 장로교와 감리교는 연합운동을 펼치는 데,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가 그 시작이고 1924년에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로 변형되었다.²⁾ 1932년 9월 이 공의회는 12개 조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사회신조³⁾를 천명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父)로 인류를 형제로 신(信)하며, 기독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애와 정의와 평화가 사회의 기초적 이상이라고 사하는 동시에 일절(一切)의 유물(唯物) 교육, 유물 사상, 계급적 투쟁, 혁명 수단에 표(俵)한 사회개조와 반동적 강압에 반대하고, 진(進)해야 기독교 전도와 교육 급(及) 사회 사업을 확장해야 기독속죄의 은사를 받고 갱생된 인격자로 사회의 중견이 되어 사회 조직체 중에 기독 정신이 활약케 하고 모든 재산을 신(神)께로 받은 수탁물(受託物)로 알아 신(神)과 인(人)을 위하여 공헌할 신(信)하는 자(者)이다. 우이상(右理想)에 기(期)하여 우리는 좌(左)와 여(如)히 주장한다.

1. 인류의 권리와 기회 평균(機會 平均)
2. 인류 급(及) 민족의 무차별 대우
3. 혼인 신성, 정조(貞操)에 남녀 동등 책임

1)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고 성장한 역사과정에서 이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토착적’이다. 또는 두 명의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를 통한 ‘수용적’이다. 이 두 의견은 한국 개신교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를 위해서 김용민, 「한국 개신교 정교 분리 원칙의 변용 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6-7.

2) 이덕주, 조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서울: 한들, 1997), 146.

3) 본 신조는 원문에 충실하여 한자를 한글로 표현한다. 다만 한글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오해될 여지가 있는 문자는 한자를 병행하여 기술한다.

4. 아동의 인격존중, 소년 노동의 금지
5. 여자의 교육 급(及) 지위 향상
6. 공창 폐지, 금주 촉진
7. 노동자교육, 노동시간 축소
8. 생산 급(及) 소비에 관한 협동조합의 설치
9. 용인(傭人) 피용인(被傭人)간에 협동조합 기관의 설치
10. 소득세 급(及) 상속세의 고율(高率)적 누진법의 제정
11.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 보험법의 제정
12. 일요일 공휴법의 제정, 보건에 관한 입법 급(及) 시설(施設)⁴⁾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하나님 속성을 활용하여 사랑을 강조한 신조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거듭난 삶을 살아감으로써 유물론적 입장을 철저히 반대하며 그리스도 정신을 사회에 확장시키고, 재산은 하나님이 부여한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촉구한다. 12개 조는 큰 틀에서 세 가지, 평등(1-3), 약자보호(4-6), 그리고 노동문제(7-12)로 분리될 수 있다.

위 사회신조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로, 이는 1928년 일본기독교연맹의 「사회신조」와 매우 유사⁵⁾, 대동소이⁶⁾, 또는 복제물⁷⁾로 보이지만, 그리고 1930년 기독교조선감회의 사회신경⁸⁾과 유사할지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표명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⁹⁾ 사회의식의 측면에서 진보적 성격이 보이는 점이다.¹⁰⁾ 그러나 한국 개신교가 반공산주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의 문서이며, 이는 일제가 완강한 반공주의의 노선을 설정하여 공산주의를 탄압하는 시기와 부합되는 평가도 있다.¹¹⁾

4) 이덕주, 조이제, 앞의 책, 147에서 재인용.

5) 이덕주, 조이제, 위의 책.

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385.

7) 강원돈,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과 한국 기독교”, 김흥수 엮음, 『일제하 한국 기독교와 사회주의』,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2), 55.

8) 기독교조선감리회 사회신경은 1908년 미감리회의 신학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1914년 미국 감리교회와 기독교연합회는 이를 발전시켜 사회신경을 채택했으며, 1919년 남감리교 조선연회가 우리말로 번역한 “미국내 기독교회의 사회적 신경”이 남감리교회 도리와 장정에 수록된다. 이런 배경과 내용을 위해서는 이덕주, 조이제, 위의 책. “미국내 기독교회의 사회적 신경” 배경과 내용을 위해서는 이덕주, 조이제, 위의 책, 139-143.을 참조하라. 또한 기독교조선감리회 사회신경의 배경과 내용을 위해서는 이덕주, 조이제, 위의 책, 144-146을 참조하라.

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개정판, (서울: 기독교문사, 2012), 212-213.

10)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 (서울: 지식산업사, 1993), 344.

11) 강원돈, 앞의 글.

사회신조가 작성되고 채택된 시대적 배경은 필요하다. 이런 시대적 배경 없이 사회신조에 접근할 경우, 그 의미와 의의 또는 윤리적 평가는 피상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에는 그 동인이 있기 마련이다. 많은 수의 동인들이 파헤쳐져야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마치 화산의 폭발은 수많은 화산맥에 의해 일어나는 듯이 말이다.¹²⁾ 이런 의미에서 사회신조가 작성된 이전 시대의 한국의 시대사가 짧게라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제2장) 한국의 역사는 동떨어진 섬의 역사가 아니기에 당시의 세계의 흐름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세계의 시대사 속에서의 한국의 시대사가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제3장) 이와 유사하게 사회신조도 홀로 설 수 없는 문서이기에 당시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의 강령, 성명서, 지침서 등에서 사회신조와 유사한 문구들과 외침들이 언급되어야 한다.(제4장) 이렇게 해야 사회신조의 위치가 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제5장) 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동인들과 동시대성을 파악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역사적 연구를 이른바 “시대사 연구”¹³⁾라고 부른다.

2. 1919년부터 1932년까지 한국의 시대사

1932년 9월 연합공의회 의 사회신조 발표전까지의 시대적 상황이 묘사되어야 사회신조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사회신조에서 언급된 조항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파헤치기 위해서 1919년 3. 1 운동 이후부터 1932년까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1조부터 3조까지를 평등의 관점에서 봤기에,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묘사되어야 한다. 4조부터 6조는 약자보호의 관점이기에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묘사되어야 한다. 7조부터 12조까지는 노동문제의 틀에서 보기에 당시 노동의 상황이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에, 정확히 말하면 우(宇)문에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대한 노골적 반대가 표명되었기에 여기에 대한 상황도 고려할 문제다.¹⁴⁾ 이런 틀들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반응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시 사회운동¹⁵⁾에 대한 기술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활동 등에

12) 역사에 대한 화산맥 이론을 살펴보려면, 백용기, 『교회의 시대사 연구-독일 종교사회주의의 운동』, (서울: 다산 글방, 1999), 28-30.

13) 백용기, 위의 책, 30.

14) 이런 시대사를 위해서는 1차 사료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나, 발표자가 윤리학자로서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2차 자료를 통해서 기술됨을 밝힌다.

15)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인과 협조한 외국인들이 펼친 활동들을 사회운동이라 칭할 것이다. 노치준은 이런 운동을 민족운동이라 칭했지만, 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3), 16.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민족이란 명칭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총칭의 운동이기에 ‘민족’보다는 ‘사회’라고 명하는 것이 윤리적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사회운동에는 독립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노동운동 등이 포함된다.

대한 기술도 필요하다.

1) 한국 개신교의 상황

3.1 운동 이후, 일본제국주의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기만정책을 실시했다.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친일단체가 육성되었다. 한국 개신교는 일제에 인정 받은 합법적이면서 개방적인 조직이었다. 조직의 수가 많아지면서 내부 분열과 갈등은 당연한 결과였다. 일제가 선교사들을 회유시킴으로써 선교사 중심의 한국 개신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제와의 동화과정의 순서를 밟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20년대 한국 개신교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일제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결합 속에 있던 선교사들과 개신교 내에서의 동맹 세력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 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민족주의적 사회운동 세력이다. 마지막은 탈정치적, 탈세계적, 탈역사성 신앙을 근거로 모인 대부분의 교회 대중들이다.¹⁶⁾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는 일제에 의해 허가받은 합법적 조직이며 직, 간접적으로 일제의 영향력 아래에서 형성되고 활동한 조직인 셈이다.

1920년대 사회운동 조직이 분화되면서 기독교, 특히 한국 개신교는 시민운동적 성격으로서 문화적 사회운동과 실력양성운동, 비정치적 노선 등의 우파적, 비폭력적, 도덕주의적 노선에서 사회운동의 방법론을 선호했다.¹⁷⁾ 이런 배경에서 지도자들과 청년 세력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¹⁸⁾ 이들의 다수는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념이 사회운동을 펼침에 있어서 기독교를 대신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개신교는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회운동에서 멀어지고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 머물게 되었다. 물산장려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¹⁹⁾ 민족자본을 설립하고자 실시한 물산장려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나마 도덕성 회복을 위한 금연, 금주 등의 절제운동이 개인적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는 정도였다.

한국 개신교의 선교 초기의 지도자들은 주로 상공업 종사자,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였다. 이들을 통해 한국 개신교는 대도시와 농촌으로 확산되었는데, 대도시의 교회와 농촌의 교회 사이의 양극화는 극심했다.²⁰⁾ 대도시의 교회와 농촌의 교회를 비교했을 때, 절대다수가 농촌의 교회였다.²¹⁾ 당시 한국의 농촌사회에서 가장 큰

16) 이런 해석으로 강원돈, 앞의 글, 42.

17) 이런 해석으로 노치준, 앞의 책, 85.

18) 노치준, 앞의 책, 225.

19) 그 외에 신사참배거부운동이 대표적인데,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1932년으로 볼 때, 1932년 이전까지 다루는 이 글의 밖의 범위에 있기에 생략한다.

20) 노치준, 앞의 책, 112.

21) 노치준, 위의 책.

문제는 소작농에 관한 것이었다. 소작농의 삶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²²⁾ 1920년대 말에는 농촌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독교인의 수와 헌금이 감소했다.²³⁾ 농촌교회는 이런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개신교는 소작쟁의와 노동쟁의보다는 농촌계몽운동에 집중했다. 농촌계몽운동의 진행과 성과적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²⁴⁾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작쟁의나 노동쟁의, 농촌의 협동조합 건설을 통한 자립화 운동에서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이었다.

기독교는 여성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여성들은 보호받는 존재로 인식되었다.²⁵⁾ 1922년에 여자기독교청년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가 창립되어 여성을 위한 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물산장려운동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여성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는데 기독교의 공헌이 지대했다. 1927년 근우회가 창립되었을 때, 기독교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한국 개신교가 여성운동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YWCA는 공창제폐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한국 개신교 내에서 노동운동에 직접 참여한 역사적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기독교청년회(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에서 활동한 몇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당시 노동자 문제를 언급한 정도였다.²⁶⁾ 또한 노동운동단체들에게 교회를 장소로 사용하도록 협조한 흔적들만 보인다.²⁷⁾

한국 개신교 내에서 사회주의적 입장을 표방하거나 기독교 사회주의자로 자칭했던 사람들²⁸⁾과 19세기 미국의 사회복음주의운동(Social Gospel)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YMCA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맘스주의적 사회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들은 예수를 사회혁명가로 이해하거나 교회가 사회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²⁹⁾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농촌사업으로 합세했다. YMCA는 농촌계몽운동과 더불어 신용협동조합운동도 펼쳤으나,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³⁰⁾ 물론

22) 민경배, 『한국 기독교 사회 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204.

23) 민경배, 위의 책.

24) 여기에 대해서는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1925-1937)』,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7.을 참조하라.

25) 윤정란,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서울: 국학자료원, 2003), 187.

26) 홍병선, 이대위, 김창제, 강명석 등이 그 예다. 노치준, “일제하 한국 YMCA의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 연구”, 김흥수 엮음, 앞의 책, 76-80.

27) 신용하, 앞의 책, 233.

28) 대표적인 인물로 조만식, 배민수, 유재기, 이대위, 김창제 등이 언급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권진관, “1920-30년대 급진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민중과 교회”, 김흥수 엮음, 앞의 책, 21.

29) 이런 주장은 이대위가 했다. 여기에 대해서 위의 글, 19.

한국 개신교 내에서 비타협적 사회운동을 펼치는 부류와 사회주의자들이 제휴하여 1927년에 결성한 신간회에 한국 개신교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활동하기도 했으나, 신간회는 1929년 내부의 분열로 시작하여 1931년에는 해체되었다. 아울러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개신교에 가한 폭력적 행위로 한국 개신교와 공산주의 사이에 감정적 적대관계가 형성되었다.³¹⁾

한국 개신교는 우파적 민족주의와 비폭력주의와 도덕주의의 성격을 지니며, 일제 강점기의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조직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개신교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외치거나, 강력한 소작쟁의나 노동쟁의운동을 펼치기 어려운 한계성을 가졌다.

2) 동시대 한국의 상황³²⁾

일제는 3.1 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군인과 경찰의 탄압역량을 다시 강화시켰다. 일제는 친일단체의 육성과 이용을 통해서 이들이 참정권 청원운동, 문화운동, 자치운동을 펼치도록 도움을 주며 민족운동의 분열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 독립운동은 이른바 일제와의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분열되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세력과 협력을 모색하였다.³³⁾ 3.1운동 이후 사회운동의 방향은 민족주의적 입장과 사회주의적 입장으로 양분되었다. 때로는 1927년 신간회와 근우회의 창립과정에서 두 입장이 협업체제로 구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분된 상태에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 한국의 농민계층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한국의 농민은 자작농이든 소작농이든 모두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 부채의 이자율은 고율의 고리대이자여서 농민들의 몰락을 부채질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농장회사를 설립하며 토지를 침탈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 지주에서 일본인 지주로 변경되었다. 산미증식계획을 통해서 한국의 자작농은 고액의 수리(水利)비용과 화학비료의 비용에 과다 지출해 부채가 또한 늘었다. 지주(地主)제도에 있어서 소작료율을 총생산의 55-60%로 정해 고율소작료의 착취로 소작농층이 농업을 포기해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유랑민이 되어 도시나, 일본, 만주로 떠났다. 한국의 농촌사회에서 여러 복잡한 연유로 농민들

30) 강원돈 앞의 글, 52.

31) 노치준, 앞의 책, 78-79.

32) 이 부분은 신용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중)』,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에 기대어 기술할 것이다.

33) 신용하, 위의 책, 27

의 삶이 궁핍해졌으며 일본인 지주층이 등장하고 그들의 지배가 확장되었다.³⁴⁾

3.1 운동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한 청년들은 비밀결사로 단체들을 조직하였다. 이 단체들은 1920년 이후 공개적, 합법적 단체로 공식화되었다. 청년운동도 역시 민족주의자들의 주도와 사회주의자들의 주도로 결성된 단체로 양분되었다.³⁵⁾ 민족주의자의 주도 속에서 진행된 청년운동은 교육, 문화, 산업 증진을 옹호하며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조선물산장려운동을 후원하였다. 사회주의자의 주도 속에서 진행된 청년운동은 여성문제, 교육문제, 경제문제, 노동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다. 1926년 6.10 만세운동을 주도한 단체 중에 청년운동도 포함되었다.³⁶⁾ 6.10 만세운동 이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청년운동도 1927년 신간회의 창립 이후 협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백정의 인권운동인 형평운동도 이 시기에 일어났다.

3.1 운동 이후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볼 때, 여성교육을 위한 교육단체가 결성되어 학교 설립을 통한 여성인재 양성과 여성 계몽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부인회라는 명칭으로 민족기업육성이나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종교계에서 특히 개신교에서의 여성운동은 YWCA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여성운동은 주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독립자금모금과 독립지원에 힘을 쓰면서 동시에 가부장적 여성억압으로부터 여성해방, 여성인권보호 등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주로 여성들을 보호받는 존재로 인식해 계몽운동의 입장을 취했으며, 공사창 폐지를 위해 단결 투쟁의 결의도 보였다.³⁷⁾ 민족주의적 노선과 사회주의적 노선의 여성운동은 1927년 근우회로 통합되어 활동을 전개했다.³⁸⁾ 한편, 어린이 운동도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에 앞장 선 단체는 천도교 중심의 천도교소년회의였다.³⁹⁾ 이들은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문서발간 운동을 펼쳤다. 기독교 계열의 YMCA는 보이스카우트(Boy Scout)를 도입하였다. 어린이 운동 또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으로 양분되었다.⁴⁰⁾

1920년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던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1922년 조선물산장려회가 창립되고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사회주의의 노선에서 조선노동공제회를 비롯하여 노동운동단체들이 조직되어 노동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⁴¹⁾ 이들은 노동자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화시켜 노동강연과 노동야학 등을 실시했다. 소비조합과 노동조합도 아울러 조직하면서 동맹파업과 노

34) 신용하는 이와 더불어 “농촌수공업의 파괴”, “일제자본의 농민지배와 농업공황”, “고리대 수취”, “일제가 부과한 조세공과”, 담배, 인삼 등의 재배를 통한 “전매제도”의 실시를 예로 들어 농촌사회의 농민들의 몰락의 요인을 분석했다. 신용하, 위의 책, 81-89.

35) 신용하, 위의 책, 286.

36) 신용하, 위의 책, 291

37) 윤정란, 앞의 책, 187

38) 신용하, 위의 책, 310-318.

39) 어린이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방정환은 천도교소년회의 지도자였다. 신용하, 위의 책, 319.

40) 신용하, 위의 책, 324.

41) 신용하, 위의 책, 224.

동쟁의를 펼쳤다. 노동공제회의 경우 농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소작쟁의 운동도 진행했다. 이들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의 계급해방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은 순수한 노동운동 자체를 넘어서 민족해방 운동을 겸행하고 있다고 본다.⁴²⁾ 노동쟁의의 측면에서 1929년 원산총파업 등의 항일노동운동을 펼쳤다. 농민운동의 경우,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소작쟁의를 펼쳤다. 온건적 입장에서는 농민의 계몽운동과 실력양성 운동도 펼쳤다.⁴³⁾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 그리고 노동해방과 계급해방을 결합시킨 결과였다.⁴⁴⁾

3. 1919년부터 1932년까지 세계의 흐름

당시 세계의 흐름을 큰 사건 중심으로 간략히 본다면, 당시는 제국주의의 팽창으로 인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다. 1919년 국제연맹이 창설되고 군비 축소, 민족자결 등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보유한 해외 식민지를 위임통치했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거뒀으며, 1919년 코민테른이 창설되어 공산주의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확산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섰다. 1929년 뉴욕 증시의 몰락 이후, 경제공황이 닥쳤다. 경제공황은 독일에게 치명타를 입혔는데, 이후 히틀러(Adolf von Hitler)의 국가사회주의당이 최대정당이 되고 1934년에는 히틀러가 총통에 임명되었다. 유럽을 중심으로 1920년대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권경쟁이 심화되었다, 1930년대 초에는 경제공황으로 인한 공산주의, 파시즘, 그리고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가 출몰했다.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면서 일왕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 전체주의 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파시즘과 나치즘은 공화정부 체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까지도 반대했다.

세계 개신교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이다. 20세기 초 크게 세 가지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존재했다. 국제선교대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생활과 노동(Life and Work), 그리고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가 그것이었다. 국제선교대회와 생활과 노동이 사회신조와 비교할 때, 그 유사점이 많다고 본다. 1910년 제1차 국제선교대회는 교회의 역할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해야 한다”⁴⁵⁾고 천명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

42) 신용하, 위의 책, 227.

43) 신용하, 위의 책, 273.

44) 신용하, 위의 책, 229.

45)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To consider Missionary problems in relation of the Non-Christian world). *Report of Commission XI*. Edinburgh: the World

후 창설된 국제연맹에 “도덕적 보강”⁴⁶⁾이 필요하고 판단한 사람들은 이와 상응한 세계교회대회를 구상했다. “생활과 노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19세기 개신교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독일에서는 개신교사회위원회(Evangelisch-Soziale Kongress)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회복음주의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1925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제1차 생활과 노동 세계교회대회(스톡홀름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경제문제와 산업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 기독교의 사랑과 사회문제의 상관성, 소유와 인간의 문제, 공적인 삶에서의 기독교의 역할, 산업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책무, 어린이 노동의 문제, 실업문제, 그리고 노동윤리적 측면에서 공동결정권까지 논의했다.⁴⁷⁾ 스톡홀름 대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은, 특히 경제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 추상적인 개념인 사랑, 형제애, 그리고 정의와 같은 기독교 원칙들이었다.⁴⁸⁾ 그럼에도 교회가 사회를 위해 짊어져야 할 책무와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 대회의 영향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정의를 갈구하는 많은 젊은이와 노동자들에게까지 이르렀다.

스톡홀름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 속에 추상적 선언이 많은 것을 인식한 참석자들은 상이한 의견의 차이를 줄이고자 다음 대회까지 지속적 모임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이를 위해서 계속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하부 구조인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e Sozialwissenschaftliche Institut)에서 사람들은 당시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소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독교의 시각에서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졌다.⁴⁹⁾ 1929년 경제공황의 발생 전까지 연구소는 간학문 간 대화를 시도했으며, 경제공황 이후부터는 실업문제에 천착했다. 이 연구소가 진행한 사회적 교회의 국제전문가회의(Interantionale sozialkirchliche Expertenkonferenz)는 당시 사회문제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경제공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문제 속에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노동시간의 단축,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설치, 대량의

Missionary Conference. 1910, 141.

46) Hübner, J., *Globalisierung-Herausforderung für Kirche und Theologie: Perspektiven einer menschengerechten Weltwirtschaft*, (Stuttgart: 2003), 114.

47) 여기에 대해서는 Choi, Kyung Suk, *Auf dem Weg zu einer ökumenischen Wirtschaftsethik-Die Bedeutung der wirtschaftsethischen Diskussionen von Stockholm bis Amsterdam*, (Ruhr Universität Bochum, Disssertation, 2009), 18-33. 그리고 최경석,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9(2010), 210-213.

48) 최경석, 위의 글, 211.

49) 국제노동기구에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연구소에서 같이 협력했으며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Choi, Kyung Suk, 앞의 책, 48-56.

구매력 강화 방안 등이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해 투쟁하도록 촉구했다.⁵⁰⁾ 당시 경제현상들에서 나타난 관세정책에 반대하고 국가적 채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채무를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제안하기도 했다.⁵¹⁾

1928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2차 국제선교대회는 이 연구소와 관계를 맺으며 당시 산업과 사회문제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창설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가졌다.⁵²⁾ 예루살렘 대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회제도와 경제정책까지 확장시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거룩함, 형제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무의 원칙 속에서 전쟁, 경제적 착취, 독과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까지를 교회의 책무로 선포했다.⁵³⁾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대회는 선진공업국가들을 자본의 집중, 독점적 경제성장, 사회와 경제에서 부정의, 그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견제할 구체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⁵⁴⁾

4. 동시대 한국 내 사회운동의 목소리

1920년부터 1932년까지 사회운동조직들이 내건 강령과 선언문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될 수 있다. 이들의 주장들과 사회신조의 비교는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와 사회신조의 성격과 윤리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1장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한 바를 바탕으로 평등, 약자보호, 노동문제에 관한 강령들과 선언문들을 취사선택하고 사회신조보다 앞선 문서들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기술할 것이다.⁵⁵⁾

1. 1926년 6.10 만세운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일으킨 항일운동이다. 이 운동의 격고문(檄告文)에서 사회신조와 비교할 만한 내용들을 취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3. 횡포한 총독정치를 구축(驅逐)하고, 일제를 타도하라.
6. 일본인을 조선의 영역으로부터 구축하자.

50) Der Konferenzbericht der Londoner Tagung, *Kirchen und moderne Wirtschaftsgestaltung, Konferenz kirchlicher Sozialarbeiter: Ökumenischer Rat für praktisches Christentum, Studien und Dokumente Nr. 4*, (Genf: 1931), 10.

51) 최경석, 앞의 글. 221.

52) *Statement Jerusalem, Jerusalem Meeting Reports, Vol. V, Mission and Industrialism*, (London: 1929), 191.

53) 위의 책, 184.

54) 위의 책, 186-191.

55) 이 문서들은 인용하, 앞의 책에서 재인용함을 밝힌다.

10. 일본의 납세를 거부하자.
12. 조선인 관리는 일체 퇴직하라.
13. 공장의 노동자는 총파업하라.
14.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15. 동일노동의 동일임금
16. 소작제는 4.6제로 하고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하라.
17. 소작권은 이동하지 못한다.
18. 일본인 지주의 소작료는 주지 말자.⁵⁶⁾

2. 1927년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신간회는 민족주의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의 협력하여 독립운동을 펼친 일제가 허가한 합법적 단체였다. 신간회는 중앙조직과 지방지회로 분리되어 활동하였다. 사회신조와 비교할 때, 다음의 당면과제 6항목중 5개 항목이 주목될 수 있다.

1. 농민교양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경작권의 확보 및 외래이민을 방지한다.
3.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확보한다.
4.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5.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하고 지도한다.⁵⁷⁾

1928년 12월 신간회 동경지회에서 창립 당시 신간회의 '정강'(政綱)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당면 정책을 제안했다. 취사선택하여 기술한다면,

1. 우리는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실현을 기한다.
2. 우리는 전민족의 총력을 집중하여 민족적 대표기관이 되기를 희망한다.
3. 우리는 모든 개량주의 운동을 배격하며 전민족적 현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투쟁하기를 기한다.⁵⁸⁾

제안한 정책들이 24개인데, 사회신조와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본다면,

2. 조선민족을 억압하는 모든 법령의 철폐
3. 고문제 폐지 및 재판의 절대 공개

56) 신용하, 위의 책, 400-401.

57) 신용하, 위의 책, 427.

58) 신용하, 위의 책, 438.

4. 일본인 이민 반대
5. 부당납세 반대
6. 산업정책의 조선인 본위
8. 단결권, 파업권, 단체계약권의 확립
10. 최고소작료의 공정(公定)
11. 소작인의 노예적 부역 폐지
12. 소년 및 부인의 야간노동, 갱내노동 및 위험작업의 금지
13. 8시간 노동제 실시
14. 최저임금, 최저봉급제의 실시
20. 여자의 법률상 및 사회상의 차별 철폐
21. 여자의 인신매매 금지
22. 여자의 교육 및 직업에 대한 모든 제한 철폐⁵⁹⁾

3. 근우회는 신간회 창립 이후 3개월 뒤에 역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협력관계 속에서 창립되었다. 근우회의 행동강령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여 기술한다면,

1.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
3.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4. 인신매매, 공창 폐지
5. 농촌 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6.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産前), 산후(産後) 임금 지불
7.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노동과 야업 철폐⁶⁰⁾

4.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 강령과 1924년 조선노동연맹회의 강령도 주목된다. 먼저 조선노동공제회의 강령이다.

1. 인권의 자유평등과 민족적 차별의 철폐를 기함
1. 식민지교육의 지양과 대중문화의 발전을 기함
1. 노동자의 기술양성과 직업소개를 기함
1. 각종 노예의 해방과 상호부조를 기함⁶¹⁾

59) 신용하, 위의 책, 438-439. 농민문제와 노동문제에 있어서 신간회 지방지회의, 특히 대구지회와 안성지회의 강령은 최저임금, 소년 및 부인의 야간노동 갱내 노동 및 위험작업의 금지 등의 중앙본부보다 더 구체적이다. 신용하, 위의 책, 439-440.

60) 신용하, 위의 책, 459. 근우회의 중심슬로건과 서울지회의 행동강령도 이와 유사하다. 신용하, 위의 책, 461-462.

61) 신용하, 위의 책, 228.

조선노동연맹회의 강령이다.

1. 우리는 노동계급을 해방하여 신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우리는 단결의 위력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얻는 데까지 철저히 자본가계급과 투쟁한다.
3. 우리는 노동계급의 현 생활에 비추어 복리증진 및 경제적 향상을 도모한다.⁶²⁾

5.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주의 단체들이 창립되고,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도 창립되면서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립되었다. 이 당의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슬로건을 살핀다면,

1. 일본제국주의 통치의 완전한 타도, 조선의 완전한 독립
2. 8시간 노동제(광산 6시간 노동), 노임증가 및 최저임금제 제정, 실업자 구제, 사회보험제 실시
3. 부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일체의 권리의 평등, 노동부녀의 산전 산후의 휴식과 임금 지불
4. 국가경비에 의한 의무교육 및 직업교육 실시
14.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본이민제를 철폐하라. 군농회를 철폐하라.
15. 일본물화(日本物貨)를 배척하라. 조선인 관리는 일체 퇴직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16. 일본인 지주에 소작료를 지불하지 말라. 일본인 교원에게서 배우지 말라. 일본인 상인과 관계를 단절하라.⁶³⁾

6. 여성운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25년 경성여자청년회 강령이다.

1. 우리는 부인의 독립 자유를 확보하고 모성보호와 남녀평등권이 있는 사회제도의 실현을 기함
1. 우리는 부인해방에 관한 사회과학상의 교의를 천명하고 그 보급을 도모함⁶⁴⁾

7. 어린이운동은 1923년 천도교소년회와 색동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소년운동의 선언에서 이 운동이 추구하는 방향을 읽을 수 있다.(1923년)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62) 신용하, 위의 책, 257.

63) 신용하, 위의 책, 365.

64) 신용하, 위의 책, 317.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⁶⁵⁾

이와 유사하게 사회주의 노선에서 진행된 조선소년연합회가 조선소년총동맹으로 1928년 명칭이 변경되어 강령과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1. 소년 인신매매에 대한 방지운동을 하자.
1. 18세 이하 조혼방지운동을 하자.
1. 소년의 위험작업 유년노동 방지운동을 하자.⁶⁶⁾

위에서 언급된 목소리들은 사회신조와 비교할 때, “인류와 민족의 무차별”과는 다른 일제에 대한 배격의 목소리가 강하다. 노동, 여성, 어린이, 소작농의 문제들에서 사회신조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행동적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신조의 내용이 이미 한국 내의 여러 단체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5. 일제 강점기 말 파시즘까지의 상황 속에서 신조의 활용과 평가

경제공황 이후 일제는 활로를 찾고자 1931년 만주를 침략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전시통제가 시작되었고 물자동원령도 내려졌다. 1941년 태평양전쟁을 기점으로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만주침략 이후, 1932년 일본에 군부내각이 들어섰으며, 이들은 1936년 이른바 군사파시즘체제를 강화시켰다.⁶⁷⁾ 일왕중심의 ‘위로부터’ 구축된 파시즘체제에서 농민들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국민총력운동 등에 의해 공출, 징용, 그리고 징병 등과 같은 행태로 유린당했다.⁶⁸⁾ 한국의 청년들은 징병이 대상이었다. 중소상공업자와 하급공무원에 대한 민족 간의 차별은 극심해졌으며, 강제 위안부 설치로 수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갔다.⁶⁹⁾ 전시체제 아래에서 한국의 민중들은 고초 그 자체였다. 게다가 이미 한국의 정치운동은 온건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일제와 동화되었다.⁷⁰⁾

65) 신용하, 위의 책, 320.

66) 신용하, 위의 책, 325.

67) 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1938-1945』, (서울: 신서원, 2001), 55

68) 변은진, “일제 ‘사상전체제’ 하 조선민중의 불만과 ‘저항의식’”,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일제 강점기 한국의 삶과 민족운동』, (서울: 경인문화사, 2005), 296

69) 강정숙, “일제 권력기관의 조선인 군 ‘위안부’ 동원-공문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237.

1931년 만주침략 이후 일제는 반공을 앞세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탄압했다.⁷¹⁾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사상적 탄압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만 가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 자유주의, 평화주의 등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1932년 이후 한국과 만주에 특별 훈련을 받은 경찰들이 파견되어 이런 사상가들을 조사하고 검거했다.⁷²⁾ 교회마저도 감시대상이었지만 특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단속과 검거가 철저히 진행되었다.⁷³⁾ 사상은 철저히 일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유린당했고 일제의 반공에 대한 사고는 철옹성 자체였다.

1930년대 최저 임금과 최고 노동시간,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부녀자들의 노동에 대한 특별규정, 공휴일 등의 조항이 포함된 일제의 공장법을 한국 내에서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공장법은 한국 내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공장법의 시행이 한국 내에서 논의된 배경은 온건한 노동계몽운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대중파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⁷⁴⁾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를 위시로 한, 한국 개신교의 상황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같은 길을 걸었다. 한국 개신교의 자랑거리였던 농촌사업은 일제의 경영에 협조했으며, 지도자들은 일제로 전향하고 정치에 적극 협조했다.⁷⁵⁾ 한국 개신교의 대부분은 사회에 대한 몰이해로 신비주의와 내세 지향적 종교로 변형되었다. 1930년대 한국 개신교는 주지하듯이 신학적 갈등과 신사참배문제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30년대는 한국 개신교에서 보수주의자들의 헤게모니가 확고히 강화된 시기였다.⁷⁶⁾ 1939년 일왕제 국가 운영과 전시체제에 총동원이 가능한 법안인 종교단체법은 일본과 한국 내의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⁷⁷⁾ 일본기독교는 1941년 일왕중심의 전쟁옹호와 대동아건설의 목적을 완수하는 데 적극 동참하였으며⁷⁸⁾ 194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는 일본기독교로 변모되는 절차를 밟았다.⁷⁹⁾ 감리교단은 이보다 앞선 1940년 이미 일왕정치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널리 전파(황도 선양, 皇道 宣揚)하고 반공과 국방을 사회교육적 실천 사항으로 정했다.⁸⁰⁾ 결국 한국

70)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서울: 경인문화사, 2006), 455 이하

71) 강원돈, 앞의 글, 55.

72) 사와마사히코, “한국교회의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의 역사적 연구”, 김흥수 엮음, 앞의 책, 145

73) 사와마사히코, 위의 글, 146.

74) 광건홍, 앞의 책, 47.

75) 권진관, 앞의 글, 21.

76) 강원돈, 앞의 글, 54.

77) 서정민, 『일본기독교의 한국인식, 기독교회와 민족국가 관계론 연구』,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 279.

78) 민경배,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 신앙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47

79) 서정민, 앞의 책, 283.

80)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앞의 책, 499.

개신교는 전시통제에 일제와 손잡고 1945년 7월 19일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통합되었다.⁸¹⁾

1932년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와 사회신조가 그 이후 한국 개신교 내부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실천될 수 있었는가? 에 답을 한다면, 위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신조가 한국 개신교 내부에서 깊이 숙고한 산물인가?의 물음에 답을 한다면, 역시 그렇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신조의 내용은 이미 한국의 다양한 단체들이 고민한 문제들이었다. 특히 1928년 일본기독교연맹의 사회신조와 복사판일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이미 감리교에서 논의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재해석에 불과하다. 사회신조의 12개 조항들이 그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의 물음에 답을 한다면, 역시 그렇지 않다. 당시 사회단체들이 이미 앞선 시대에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고 사회신조는 그저 재천명에 불과하다. 1조와 2조의 평등은 누구를 위한 평등인지 모호하다. 인류와 민족의 평등이라면, 왜 일제의 차별에 대한 구체적 조항들이 없을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32년 이미 한국의 모든 체제는 일제와 동화되어갔다. 한국 개신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국 개신교도 이미 일제와 동화되어가고 있기에, 그 전의 다른 단체들의 목소리에서 나왔던 반일 내지 항일의 문구는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사회신조는 일제의 반공노선에 궤를 같이하며 우문(右文)에 반공노선을 공식화함으로써 한국 개신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첫 공식문서였다는 것이다. 우문은 “기독교주의”를 재천명하면서 거기에 반하는 것은 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천명한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신조는 이원론적 사고 방식의 틀에서 유물론과 기독교, 무신론과 유신론의 양자택일 요소가 농후하게 설정⁸²⁾되어 반공주의가 절대적 신조로 한국 개신교에서 자리를 매김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한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한국 개신교 내부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윤리적 자기만족의 문서라는 것이다.

6. 나가는 말: 사회신조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가능한가?

윤리적 평가 특히 사회윤리적 평가를 위해서 방법론이 언급되어야 하겠지만, 지면의 관계로 방법론은 간략히 언급될 것이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 세상이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세상에 대해서 궁극적

81) 서정민, 앞의 책, 286.

82) 이런 해석으로 강월돈, 앞의 글, 55.

인 것(Das Letzte)과 궁극이전의 것(Das Vorletzte)으로 구분했다.⁸³⁾ 하나님에 속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궁극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상대적이고 유한한 궁극이전 것이 가지는 법칙에 비판적 조명을 비취며 궁극적인 것을 향하여 세상의 법칙을 형성하는 형성윤리가 가능하다.⁸⁴⁾ 아르투르 리히(Arthur Rich)는 상대적인 세상과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통해서 “실존적 종말론”을 위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세상에 구체적인 사회윤리가 가능하다고 본다.⁸⁵⁾ 즉 세상은 상대적이고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빛에서 형성가능하고(본히 퍼), 보다 더 개선되고(브라켈만), 그리고 실현가능한 제도(리히)의 궁극이전의 것이 기독교 사회윤리가 추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론에 의할 때, 사회신조는 당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천명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시대가 그 행동의 결실을 맺기 어려웠지만 결과물인 행동은 전무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원돈,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과 한국 기독교”, 김흥수 엮음, 『일제하 한국 기독교와 사회주의』,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2
- 강정숙, “일제 권력기관의 조선인 군 ‘위안부’ 동원-공문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일제 강점기 한국의 삶과 민족운동』,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1938-1945』, 서울: 신서원, 2001
- 권진관, “1920-30년대 급진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민중과 교회”, 김흥수 엮음, 『일제하 한국 기독교와 사회주의』.
-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서울: 경인문화사, 2006

83) Bonhoeffer, D., *Ethik*, (München: 1981), 253.

84) 귄터 브라켈만(Günter Brakelman)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세상 속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른바 “보다 더의 윤리 혹은 비교급의 윤리”(Ethik des Komparativs)를 주장한다. Brakelmann, G., *Ein Theologe in Konflikten seiner Zeit*, (Münster: 2006), 33-34.

85) Rich, A., *Wirtschaftsethik Bd.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h: 1987), 강원돈 역, 『경제윤리 I』,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187.

- 김용민, 「한국 개신교 정교 분리 원칙의 변용 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노치준, “일제하 한국 YMCA의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 연구”, 김흥수 엮음, 『일제하 한국 기독교와 사회주의』
- 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3
- 민경배, 『한국 기독교 사회 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민경배,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 신앙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 백용기, 『교회의 시대사 연구-독일 종교사회주의의 운동』, 서울: 다산 글방, 1999
- 변은진, “일제 ‘사상전체제’ 하 조신민중의 불만과 ‘저항의식’”,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일제 강점기 한국의 삶과 민족운동』,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사와마사히코, “한국교회의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의 역사적 연구”, 김흥수 엮음, 『일제하 한국 기독교와 사회주의』,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2
- 서정민, 『일본기독교의 한국인식, 기독교회와 민족국가 관계론 연구』,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
- 신용하, 신용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중)』,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윤정란,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서울: 국학자료원, 2003
- 이덕주, 조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서울: 한들, 1997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3
- 최경석,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19, 2010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개정판, 서울: 기독교문사, 2012
-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1925-1937)』,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Bonhoeffer, D., *Ethik*, (München: 1981)
- Brakelmann, G., *Ein Theologe in Konflikten seiner Zeit*, (Münster: 2006)
- Choi, Kyung Suk, *Auf dem Weg zu einer ökumenischen Wirtschaftsethik-Die Bedeutung der wirtschaftsethischen Diskussionen von Stockholm bis Amsterdam*, (Ruhr Universität Bochum, Dissertation, 2009)
- Hübner, J., *Globalisierung-Herausforderung für Kirche und Theologie: Perspektiven einer menschengerechten Weltwirtschaft*, (Stuttgart: 2003)
- Der Konferenzbericht der Londoner Tagung, *Kirchen und moderne Wirtschaftsgestaltung, Konferenz kirchlicher Sozialarbeiter: Ökumenischer Rat für praktisches Christentum, Studien und Dokumente Nr. 4*, (Genf: 1931)
- Statement Jerusalem, Jerusalem Meeting Reports, Vol. V, Mission and Industrialism*, (London: 1929)

Rich, A., *Wirtschaftsethik Bd.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h: 1987), 강원돈 역, 『경제윤리 I』,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To consider Missionary problems in relation of the Non-Christian world). *Report of Commission XI*. Edinburgh: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에 대한 윤리적 평가” 에 대한 논찬

최경석 교수님의 발표문은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사회신조를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사회신조 자체보다 사회신조가 발표되기 전의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움직임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신조의 역사적 위치와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논문으로 연구사적 의미가 높습니다. 이 논문은 사회신조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시도하는 논문이지만 당대의 역사적 흐름을 면밀하게 살피는 역사적 연구의 문법을 지키고 있기에 교회사 전공자로서 매우 즐겁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좋은 발표로 지적인 즐거움을 주신 최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은 먼저 3.1운동 이후 한국의 시대사를 교회사와 민족사 차원으로 나누어 다양한 운동들이 선행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기간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소개하며 사회신조가 발표되기까지의 전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신조보다 먼저 발표된 한국 사회운동의 각종 강령과 선언을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강령과 선언문은 6.10만세운동, 신간회, 신간회 동경지회, 근우회,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동연맹회, 조선공산당, 경성여자청년회, 천도교소년회와 색동회, 조선소년총동맹의 것입니다. 다양한 기관들의 입장을 두루 살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런 입장들이 사회신조보다 먼저 발표되었으며 보다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회신조가 발표 이후 현실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신조는 한국 개신교가 깊이 숙고한 산물이 아니며, 구체성 없이 모호하고, 유물론과 기독교, 무신론과 유신론의 이원론적 사고에 머무른 반공 문서로 윤리적 자기만족의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NCCK는 물론 한국교회가 곱씹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NCCK의 100주년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자아도취식의 저급한 역사인식을 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표문은 학자적 양심과 사명에 충실합니다. 최 교수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사회신조가 그동안 교회사적인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럴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교수님의 논문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인상은 “용기”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과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주최한 3040 신학자 모임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신학자들마저 교권의 눈치를 보느라 “주문생산 신학”을 하고 있다는 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후신인 NCK에서 사회신조 90주년을 맞이하여 갖는 심포지엄의 발표자인 최 교수님은 그야말로 가차 없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적진 한가운데 우뚝 선 용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어떻게 하면 연구발주처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서생에게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대인의 품모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 교수님의 논지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 토론을 발주한 NCK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라는 조직의 특성과 구성원, 신조라는 문서의 성격 등을 좀 더 고려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교회 연합 기구로서 일반 사회운동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교수님은 시대적 환경과 타 기관들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을 할애하신 반면 사회신조를 발표한 주체인 공의회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 선행연구가 적지 않음에도 각주와 참고문헌에서 공의회에 대한 연구문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공의회는 민족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서로 다른 위치와 인식을 가지고 있던 다양한 기독교 기관들의 공식적인 연합체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같은 뜻과 의지를 가진 조선인끼리 모인 운동단체와는 당연히 입장과 대안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신조가 채택된 1932년의 공의회 총회록을 보면 공의회는 조선장로회, 조선감리회, 북감리회 선교사, 남감리회 선교사, 북장로회 선교사, 남장로회 선교사, 호주장로회 선교사, 캐나다연합선교사, 조선YMCA, 조선YWCA, 대영성서공회, 조선예수교서회, 조선기독교주일학교연합회,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 등 15개의 단체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특성상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신조는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대의 가장 진보적이고 구체적인 선언이 이 공의회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합의는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공의회 회원 중에 그나마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단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3.1운동 이후 한국교회 사회운동은 대체로 개량주의적이었기에 진보적이며 투쟁적인 민족단체나 사회주의 단체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전제해 두어야 합니다. 공의회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애썼던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교수님께서서는 다른 운동기관들의 강령과 선언에 비해 공의회는 사회신조가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타당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교회 연합기구인 공의회가 노동운동(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동연맹

회), 아동운동(천도교소년회, 조선소년총동맹), 여성운동(근우회, 경성여자청년회) 기관들보다 각각의 사안에 더 구체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이 담긴 신조를 발표하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구한말이라면 또 모를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교회만도 못한 사회운동단체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조 자체가 그 성격상 운동 강령이 아니라 신앙고백이자 교회의 기본 입장을 천명하는 신학적 선언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 선언에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는 사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수님은 사회신조에서 일체의 차별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시지만, 독일교회의 양심선언으로 유명한 ‘바르멘선언’에서도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시대의 콘텍스트가 가진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신조가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배격한다는 입장을 명시한 공식문서가 된 까닭, 사회신조에 따른 실질적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찾기 어려운 까닭은 콘텍스트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전반은 사회주의의 반기독교운동이 강하게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한국의 사회주의는 1925년부터 제1차 반기독교운동을 진행하다가 민족유일당을 구축하려는 계획 아래 1926년 반기독교운동을 철회하고 1927년 기독교 진영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민족주의 계열과 함께 신간회와 근우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조직은 사상과 운동의 방법론을 두고 갈등을 이어갔으며 사회주의자들이 조직을 장악한 후 내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1931년 각각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초반부터 사회주의자들의 제2차 반기독교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신간회와 근우회는 사회주의의 전국적인 조직 확산에 민족주의 진영이 이용만 당하고 해산한 꼴이었습니다.

신간회와 근우회의 주축세력 중 하나가 YMCA와 YWCA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YMCA와 YWCA는 신간회와 근우회 조직이 되기 전 반기독교운동에 어느 정도 동조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사회주의자로부터 기독교회가 배척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반기독교 운동이 없든 있든 오늘의 기독교 교회는 반성해야 한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저 민중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의 앞 운명을 개척키 위하여 있어야 하며 따라서 현대의 기독교는 반성해야 한다.”¹⁾

그러나 좌우합작은 실패로 돌아갔고, 기독교는 결별한 사회주의의 매서운 공세

를 받으며 사회운동의 사상과 방법론에 사회주의와는 차별되는 독자성이 있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었습니다.

특히 YMCA와 YWCA는 사회주의와의 협력전선이 실패했던 이유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단체는 공의회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공의회에 파송된 각 기관의 대표들을 보면 YMCA와 YWCA 계열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리회 대표의 신흥우, 최활란, 홍에스더, 김득수, 장로회 대표의 이순기, 남궁혁, YMCA 대표인 유억겸, 박용희, YWCA의 대표인 김활란, 절제회 대표인 이효덕, 조선예수교서회 대표 백락준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1932년 총회에 이 사회신조의 초안을 작성하여 공식 발표를 청원한 사회부의 부장이 김활란, 서기가 이효덕입니다. 여기에 위원에 최활란, 이순기, 김득수가 있어 전체 한국인 위원 6명 중 5명이 YMCA와 YWCA 계열의 인사입니다. 선교사를 더해 총원이 9명이라 과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눈으로 보기에 아쉬움이 가득할 수 있지만 당시 이들에게 사회주의의 배경과 기독교의 우월성을 전제하지 않은 사회신조 작성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실제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이미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1937년에는 공의회 자체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운동이 발현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합니다. 불가능했던 것을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일이 아닐까요? NCK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명 '88선언'이 교회 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해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하여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통일논의를 민간차원에서 논의하려는 시도를 탄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단지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해야 할 교회의 통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건이 '88선언'을 88선언으로 만든 셈입니다.

아울러 실제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선언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꿈은 아름답지 않은 것인가요? 루터는 위대하되 후스는 무의미한가요? 저는 선언이 구체적인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선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너무 무리한 생각인지요.

3. 사회신조가 기독교에서 숙고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는 평가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신조는 당시 기독교의 사회운동을 견인하던 YMCA와 YWCA의 인사들이 초안을 잡았습니다. 교수님은 신간회와 근우회의 강령 등을 사회신조보다 앞선 한국사회의 선언으로 소개하고 계신데 사실 그것들에도 양Y의 입장이 들어있습니다.

3.1운동 직후부터 '사회개조적' 신앙관이 교회 내에서 주장되어 왔으며 192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사회복음주의가 한국에 유입되었습니다. 내한 선교회들도

1919년부터 상설기구로 사회사업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조직하였고 한국교회에 사회사업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에 1925년부터 가가와 도요히코의 영향을 받아 ‘사랑의 원리에 입각한 기독교의 새로운 사회건설’이라는 사회복지적 방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가 이른바 사회구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세계 기독교의 흐름과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농촌운동을 공식사업으로 추진합니다.²⁾ 농촌운동은 양Y는 물론 교단과 공의회도 함께 추진한 운동이었습니다. 1932년에는 찰스 알렌 클락이 『교회사회사업』(조선예수교서회)을 펴냈습니다. “민중의 경제생활, 자선사업, 빈민, 고아와 양로, 환자, 죄수 성매매 종사자, 금주, 흡연, 동물대우, 평민의 오락 따위의 사업을 논하는 이 책은 오늘날 사회복지 학자들로부터 그 시기의 유일한 사회사업 안내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³⁾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논의와 숙고들이 모여 결국 한국교회 사회윤리의 표준을 세우려는 사회신조의 발표로 이어진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사회신조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신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사회신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물론 사회신조는 부족한 점이 많은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과 내용의 활용 가능한 지점들을 어떻게든 오늘의 운동에 접목하고, 오늘의 운동에 주어지는 비판과 공격에 대한 변증으로 활용할 때 사회신조가 오늘에도 의미 있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회신조가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도 충분히 오늘의 한국교회에 가치 있는 선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모자란 부분이 있는 UN의 세계인권선언이 오늘날까지 인권을 위한 투쟁의 근거로 사용되며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세계의 인권운동가들이 인권선언을 변증서로 적극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외의 공격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에큐메니컬 운동도 오늘의 운동을 변증할 역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이 근거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합니다. 사회신조를 그냥 내버리기에는 아깝지 않겠습니까?

4. 오늘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사소한 질문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2)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수용과 사회윤리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2008) 참조.

3) 김흥수, “한국 기독교사에서 잊혀진 사회복지 전통,” 『기독교사상』 2021년 9월호(2021.9), 4.

각주 1번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사학계에서 이야기해 왔던 토착화, 수용과 다른 의미로 “토착화”나 “수용”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전래와 수용을 이야기하면서 선교사 중심의 기독교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전래”와 조선인 중심의 한국적 콘텍스트에 강조점이 있는 “수용”을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토착적인 이유가 이름 모를 사람들의 노력 때문이며, 수용적인 이유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두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주 1번의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하나님의 속성을 활용하여 사랑을 강조한 신조”라는 표현에서 1930년대 한국 기독교의 문서에 어머니 하나님의 속성을 활용했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이 대목에서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과 어머니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고 이 신조 어디에서 어머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별 내용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토론문이 길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발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회신조>를 통해 본 해방후 정부 수립기의 개신교 사회운동 - 그 의미와 과제

1. 머리말

개신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앞장서서 교육과 문명개화, 민주주의의 도입과 확산에 큰 역할을 감당했고, 일제강점기 3·1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등으로 탄압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개신교 역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개신교내의 진보와 보수라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신교계의 보수는 정교분리의 원칙 아래에서 개신교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이른바 건국절 논쟁과 국정교과서 논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의 개신교의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를 이유로 부정적이었으며 참여하지 않았기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¹⁾ 개신교계의 진보는 남북의 분단과정과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개신교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는 없으며 3·1운동 이후 개신교의 중요한 기여는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개신교의 사회참여는 4·19혁명 이후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²⁾ 1960년대를 통해 개신교계는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제 식민통치에 굴복한 결과로 생겨난 신앙의 비정치화를 불식하고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정치에 관하여도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³⁾ 개신교계는 1960년 4·19혁명의 충격에서 잠에서 깨어나 반성을

1)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09년 4월 '한국교회역사바로알리기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와 한국교회사학회를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역사 교과서와 기독교, 공정하게 서술되었는가?』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형성과 기독교 역할 연구 및 한국 현대사회 관련 기독교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과제명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해방공간과 기독교 1, 2』, 『해방과 대한민국 독립』 등의 연구 결과물을 출판하였다.

2)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1960-1987』, 북코리아, 2009, 54-59.

시작했으며, 1961년 5·16쿠데타에서는 신학적 성찰의 부족으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으나,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1967년 6·8 부정선거 규탄,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 등을 거치면서 개신교계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로 나뉘게 되었다.⁴⁾ 따라서 1960년 4·19혁명 이전의 개신교 사회운동에 대한 특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최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의 개신교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 글은 해방 후 정부 수립기의 개신교 사회운동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개신교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내의 보수와 진보라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연구의 필요를 주장하는 시론(試論) 성격의 글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2. 해방공간(1945-1950)의 개신교 사회운동

일제로부터 해방된 새 나라의 중요한 과제는 일제의 수탈로 고통을 받고 있던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식민지 노예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을 맞은 개신교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할 만한 힘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민족의 대부분이 농민이었기에 당시 한국의 문제는 대부분 농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농촌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였으므로, 농촌운동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사회·교육 문제 등을 포괄하는 시대적 과제로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⁵⁾

이른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개신교회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사실상 우익의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안동교회 담임목사로 있던 김광현⁶⁾은 정교분립주의(政教分立主義)를 취(取)해 일체 정치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었으나, ‘안동이 인민공화국 천지가 되어 버리는 것을 좌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교회가 직접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삼가더라도, 나 개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나서서 하기로’ 결심하고, 우익단체 조직에 앞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 (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간행사 ii.

4)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1960-1987』, 111.

5) 홍성표, 『한열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선인, 2020, 38-41.

6) 김광현(1913-2006)은 1941년 고베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초량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였으며, 1943년 1월 초량교회를 사임하고 경북 안동교회 목사로 부임했다. 안동교회 원로 목사, 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을 역임했다.

장섰다.⁷⁾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기에 1930년대 장로교 농촌운동의 주역이었던 배민수는 반공의식에 압도되어 공산주의와의 비타협적 투쟁만을 주장하였다.⁸⁾ 일제강점기 농촌운동에 앞장섰던 김활란의 해방후 활동에 대해 김옥길은 ‘본디 농촌운동에 헌신할 마음을 단단히 가지셨던 분이지만 한 시대의 요청이 그분을 교육자로, 대학행정의 책임자로, 이화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시게 했다’며, 해방후 김활란이 농촌운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를 농촌운동과 교육운동을 구분하여 교육운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설명하였다.⁹⁾

해방공간에서 일제강점기의 농촌운동이 적극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기에, 이 시기의 개신교 농촌운동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김용기의 이상촌 운동, 유재기의 기독교흥국형제단, 강성갑의 교육운동은 중요하다. 이들의 농촌운동은 일제강점기 개신교 농촌운동의 맥을 잇는 것이지만, 이들의 실천은 일제강점기의 개신교 농촌운동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농촌의 발전과 진흥이 해방된 새나라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기에 농촌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이들에게 농촌운동은 개신교 사회운동의 한 부문(部門)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새나라 건설의 기초였으며, 모범으로 삼은 것은 덴마크 그룬트비의 실천이었다. 이들은 덴마크를 「한국」농촌의 갱생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덴마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모범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⁰⁾ 이들은 덴마크의 부흥을 이룬 그룬트비를 ‘덴마크의 종교를 개혁한 자요, 새로운 교육을 창안한 자요, 덴마크 국민을 살리기 위하여 시(詩)를 쓰고 북유럽 신화(北歐神話)를 쓰고 덴마크 역사를 쓰고, 덴마크 국어를 찾아내고, 강단에서 웨치고, 국회에 들어가 새로운 법을 만든 자’로 인식했다. 이들은 그룬트비를 ‘감감하고 차디찬 덴마크에 빛을 주고 열을 준 덴마크의 태양이다. 이 열에 수백만 덴마크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고 평가하였고, 자신들이 한국의 그룬트비가 되고자 했다.¹¹⁾

덴마크의 부흥을 이끌어 낸 그룬트비의 실천을 ‘덴마크’의 기독교인으로 ‘덴마크’라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7) 김광현, 『이 풍랑 인연하여서』, 성서교재사, 1993, 61.

8) 1938년 6월 일제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배민수는 해방이 되자 미 전쟁성의 통역관 소집에 응하여 미군정 한인통역관에 임명되어 1948년 12월 미군 철수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까지 3년간 군정 통역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는 미군정 통역관의 신분을 십분 활용하면서 우익진영의 반공주의 국가건설노선을 최전선에서 실천하였다. 그것은 곧 이승만을 지지하는 단정수립운동이었고, 동시에 이승만을 신국가의 통치자로 옹립하는 운동이었다.” 방기중, 『裴敏洙의 農村運動과 基督教思想』,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211.

9) 우월문집편집위원회 편, 『又月文集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vi.

10) 홀거 베그트롬 외, 이기백 역, 『새역사의 창조: 덴마크 國民高等學校와 農村社會의 發展』, 東洋社, 1959, 5.

11) 韓丁協會 編, 『그룬트비傳』, 11-12.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들의 실천은 ‘조선’의 기독교인으로서 ‘조선’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할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한계는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덴마크와 그룬트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대안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상촌 건설을 꿈꾸며 1931년 봉안 이상촌을 개척했던 김용기는 해방을 맞아 당시의 농촌이 너무나도 피폐해 있으며, 농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존립할 수 없고 국가의 부강은 오직 농촌의 발전에서만 온다고 지적하였다.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의지와 정신을 갖춘 농사군이 필요하다. 교육과 계몽을 통해 농사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해방 직후인 1946년경 봉안 이상촌을 방문했던 이일선은, ‘일세기전 정말국이 쏘어져 가던 잔혹한 경우와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흠을 사랑하자는 표어를 걸고 개척의 광이를 들어 오늘날의 농민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理想村』을 출간하였다.¹³⁾ 김재준은 이 책이 ‘순결한 기독교청년들의 농촌으로 향한 십자군적 운동을 전개하는데, 큰 봉화가 될 줄’로 생각한다고 『理想村』의 서문을 썼다.¹⁴⁾

김용기는 해방된 지금 이때를 덴마크와 같은 이상국을 건설 할 수 있는 호기로 여기고 자신의 이상촌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자 농민동맹을 창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해방공간의 혼란속에서 농민동맹 등의 활동으로 두 차례나 투옥당했던 김용기는 이상촌 운동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하였다. 김용기는 1946년 10월 봉안을 떠나 경기도 은평군 구기리 일대의 삼각산 기슭의 과수원 13,000평을 매입하고 개척을 시작했으며 건국의 기초로서 농촌진흥을 주장하였다. 농민들에게 덴마크처럼 국민정신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한경직, 박형룡, 김재준, 강원룡, 조향록, 여운형, 유영모 등이 삼각산농장을 방문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¹⁵⁾

일제강점기에 배민수 등과 함께 장로교 농촌운동에 앞장섰으며 1938년 기독교 농우회 사건으로 탄압받았던 유재기는 일제강점기의 농촌운동에 대한 관심을 해방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농촌운동을 시작했다. 유재기는 일제강점기에 그가 추진했던 농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농촌운동을 구상하였다.¹⁶⁾ 농촌운동의 실천을 위해 대구를 떠나 서울로 상경한 유재기는 적산(敵産)건물을 인수하여 농촌운동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재기는 1945

12)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규장문화사, 1998, 167-169.

13) 이일선, 『理想村』, 農村文化社, 1947, 7-8.

14) 이일선, 『理想村』, 6.

15)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가나안농군학교, 2014, 80-89.

16) 김권정, 「해방 후 유재기의 국가건설운동과 농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264.

년 12월 '기독교정신으로 국가건설과 부흥'을 목표로 기독교흥국형제단(基督教興國兄弟團)을 결성하였고, 1946년 10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함태영을 총재로 하고 유재기는 부총재로 취임하였다. 기독교흥국형제단에는 국가건설 차원에서 농촌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유재기의 구상에 동의한 함태영, 김재준, 배은희, 박학전 등 개신교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체계적인 농촌운동을 실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기독교흥국형제단 지부를 결성하였다.¹⁷⁾

유재기는 당시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였던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개혁을 통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토지개혁을 시작으로 농촌경제와 농민 생활의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을 건설하고자 했다. 유재기는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건설에 나서는 것은 모든 한국 개신교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리스도의 박애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복음주의 이념과 경자유전의 원리에 기초한 자립적 공동체인 '예수촌'을 건설하고자 했다.¹⁸⁾

유재기는 농촌재건을 위해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를 모델로 한 애신(愛神), 애인(愛人), 애토(愛土) 정신에 기초한 조선농민복음학교를 설립운영하였다. 농민복음학교에서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교육과 성경적 바탕 위에서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친구약 개론, 기독교사상, 예수촌론 등을 필수과목으로 강의하였다. 농민복음학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 제1회 농민복음학교가 개설된 이래 1949년 8월 14회에 걸쳐, 학생수는 총 448명이었다. 수천명의 청강생이 있었으며, 수료생들은 농복학우회(農福學友會)를 조직하여 농촌지도자로 활동했다.

유재기는 기독교흥국형제단을 통한 농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1946년 1월 『흥국시보(興國時報)』를 창간하였다. 흥국시보의 사장은 함태영, 주필은 김재준, 편집은 유재기가 맡았으며, 타블로이드판 8면의 활판인쇄물로 월 2회 5,000부 이상을 발행하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흥국시보에는 기독교흥국형제단의 활동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의 소식과 세계와 국내정세 등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남북의 분단상황에서도 기독교와 사회주의에 대해 논의하고 기독교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등 기독교와 사회주의에 관한 연재 기사를 수록하였다.¹⁹⁾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흥국시보 발간과 농민복음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농촌운동에 전념하던 유재기는 1949년 7월 숨을 거두었다. 1977년 주태익이 쓴 유재기 평전의 제목은 『이 목숨 다 바쳐서-한국의 그룬트비히 虛心 劉載奇傳』이었다.

유재기 평전을 쓴 주태익은 1951년 8월부터 약 3년 동안 강성갑이 설립한 한얼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희곡을 쓰고 연극반을 지도했다.²⁰⁾ 한얼중학교를

17) 김권정, 「해방 후 유재기의 국가건설운동과 농촌운동」, 264-267.

18) 김권정, 「해방 후 유재기의 국가건설운동과 농촌운동」, 268-272.

19) 김권정, 「해방 후 유재기의 국가건설운동과 농촌운동」, 276-278.

설립한 강성갑은 한국전쟁중인 1950년 8월 공산주의자로 몰려 희생당했으나, 1950년 10월 군법회의를 통해 가해자였던 지서장이 강성갑을 살해한 혐의로 처형되었으며, 1954년 5월 함태영 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얼중학교에서 추모동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²¹⁾ 연극반 학생들은 주태익이 쓴 희곡 「한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를 공연하는 등 강성갑을 추모하였으나, 공산주의자로 몰려 희생당했던 강성갑은 오랫동안 잊혀졌다.²²⁾

해방공간에 경남 진영에서 한얼중학교를 설립하고 개신교 농촌·교육운동에 앞장섰던 강성갑의 실천은 청년·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박형규는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강성갑을 꼽았다. 해방 후 대립과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박형규 목사의 눈에 비친 강성갑 목사의 실천은 그에게 특별한 것이었다.

해방 후 많은 젊은이들이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나 또한 그러했으나 좌익운동이나 폭력적인 농민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크리스천으로서 갖고 있던 신앙이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좌익운동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런 시대상황 속에서 나의 눈길을 끈 것이 강성갑(姜成甲) 목사의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이었다. 이분은 덴마크의 사회운동가 그룬트비히(Nikolai F. Grundtvig)를 매우 존경하여 기독교의 복음정신과 농민운동 및 사회정화운동을 결합해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중략) 강목사는 진영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육운동을 펼쳤다. 농민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우선 깨우쳐야 한다며 흙벽돌로 변두리 지역에 학교를 세웠다. 그 학교들이 진영 한얼중학교의 전신이다. 해방 후의 사회적·사상적 혼란 속에서 나는 강성갑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²³⁾

박형규의 증언처럼 ‘그때 대학생들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의 강성갑 목사님이 학생들의 희망이자 이상과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강목사님을 의지’하고 따랐다.²⁴⁾ 김재준은 강성갑이 ‘교육의 혁명적 갱신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헌신’했으며, “교육기관은 자주, 자립, 자치의 공동체라야 한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부자의 기업체나 독재자의 ‘사동(使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회고하였다.²⁵⁾ 강성갑이 희생당한 후 한얼중학교 교장을

20) 조항록, 「교우 반 세기, 암산 회고」, 『내가 만난 주태익』, 바위, 1995, 52.

21) 강성갑의 죽음과 재판, 추모행사 등은 홍성표, 『한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245-272. 참조.

22) 심사수, 「주태익 선생님과 한얼고등학교 연극반」, 『내가 만난 주태익』, 195.

23) 박형규,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창비, 2010, 59-61.

24) 홍성표, 『한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31. 강성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김동길, 이규호, 이상철, 정원식, 맹의순, 등이 있었다(홍성표, 『한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222-228).

말았던 조향록은 강성갑을 열렬한 실천가이면서도 이상주의자였다고 평가하였으며, '나름대로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나 6·25 사변에 가장 큰 손실의 하나는 한국 교육계가 강성갑을 잃은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종교와 사상계에도 그렇다고 믿는다.'며 그의 희생을 매우 아쉬워했다.²⁶⁾

당시는 모두 정치, 애국운동, 반공운동, 국회의원에 정신이 쏠려있던 때로 매일 같이 신문과 방송은 시국의 변화와 정치적 투쟁 등의 보도들로써 국민의 신경을 자극시키던 때이다. 그런데 누구보다 현실에 민감했던 강성갑은 그러한 감정적인 풍조에는 귀를 막은 듯하고 민족의 영구한 번영과 국가의 공고한 기반은 오직 올바른 교육에 있다고 믿었으며, 국민을 바로 기르고 올바른 정신과 그 정신을 몸에 배이도록 생활로 실천하는 교육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일념을 쏟았던 것이다. 그리고 한얼중학교가 그러한 교육의 표본이 되게 하려 했다.²⁷⁾

일본 도시사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초량교회의 목사로 있다가 해방을 맞은 강성갑은 경남재건노회의 서기를 맡아 교회의 반성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좌절하고, 1946년 3월 진영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강성갑은 '그 교회에 가서 농촌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진영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으며, 1946년 8월 복음중등공민학교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농촌운동을 시작하였다. 강성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혼상제의 폐습을 배격하고 근면과 노동을 권장하였으며,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초월할 것을 부르짖었다. '좌도 우도 있을 수 없다. 민족중흥의 대도는 일치단결하여 배우고 일하는 것이다.'라든가 '미국도 소련도 우리의 역사적 과업을 맡을 자는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몇 세대에 걸쳐더라도 우리의 문제로 남는다.'고 주장했다.²⁸⁾

강성갑은 당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농축되어 나타난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얼중학교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교육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강성갑의 실천은 덴마크 그룬트비의 사상을 우리 사회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교육개혁 운동이었다. 강성갑은 덴마크를 행복한 나라로 만든 '근본'이 '교육'에 있다고 확신하고, 새로운 나라의 교육방침을 자신이 세워 보겠다는 큰 꿈을 꾸었으며, 이를 통해 '이웃과 함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25) 김재준, 『金在俊全集. 13, 범용기(1): 새 역사의 발자취』, 長空金在俊牧師기념사업회, 1992, 300.

26) 조향록, 「농민교육의 개척자 강성갑」, 『스승의 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4, 281.

27) 조향록, 「농민교육의 개척자 강성갑」, 278-279.

28) 심진구, 「향토교육의 선구자 강성갑에 관한 사례연구」, 『인천교대논문집』 3, 1968, 266.

강성갑의 이상과 실천은 진영교회의 교인들과 진영지역 주민들은 물론 교육행정 당국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성갑은 인적, 물적 요건 등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교육개혁의 모범을 보이고, 진영지역의 중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얼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강성갑의 학교 설립취지에 공감한 미군정 교육부장 오천석은 재정 등 설립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과 의지를 인정하고, 한얼중학교설립을 인가해 주었다. 학교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부족한 재정과 자재난으로 교사(校舍)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성갑은 진영지역에 많이 있던 양질의 흙을 이용하여 흙벽돌을 구워 직접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진영지역 주민들은 강성갑의 노력을 목격하고 교사 신축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육관에 공감하고 교육 실천에 함께했다. 한얼중학교의 교사 신축과정은 당시 건축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흙벽돌을 사용한 창조적인 자립의 사례로 당국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다.²⁹⁾

강성갑의 교육실천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노작교육(勞作教育)과 국민신앙(國民信仰)교육이었다. 노작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적·능동적인 정신 및 신체의 작업을 중심원리로 하여 행하는 교육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실천한 사례는 강성갑이 거의 유일했다. 강성갑은 고등유민(高等遊民)만을 길러내는 맹목적인 교육을 비판하고 ‘쟁이’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³⁰⁾ 강성갑은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의식개혁을 목표로 ‘성서’를 ‘국민신앙’이라는 과목으로 가르쳤다. 강성갑은 자기중심적 존재인 인간성의 창조적 변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에 우리의 생활과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¹⁾ 교육학자 허현은 강성갑의 한얼중학교를 지역사회학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였다. 허현은 강성갑의 실천과 같이 우리 현실에 맞는 지역사회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결국은 사회적으로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³²⁾

한국의 근대교육에 앞장섰던 개신교회가 해방공간에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서는, 미군정기의 교육정책과 교육 관련 단체를 개신교계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진 한국 개신교의 교육운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관련 연구 또한 많지 않다.³³⁾ 개신교계에서 설립한 사립학교는 미군정 시기(1945-1948년)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29)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218-219.

30)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27-29; 209.

31)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212-214.

32) 허현, 「지역사회학교 제6회」, 『새교육』, 1957.6, 134.

33)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42.

1960년까지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37개교가 설립되었으며,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중학교 50개교, 고등학교 39개교가 설립되었다.³⁴⁾ 이외에도 학교가 부족하여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공민학교와 성경구락부(Bible Club)운동 등 개신교계의 문해교육(文解教育) 참여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민학교는 1946년 5월 ‘공민학교 설치 요령’이 제정되면서부터 정식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공민학교는 학령을 초과한 미취학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과, 성년과, 보수과를 두었으며 실정에 따라 필요한 과만 설치되기도 했다.³⁵⁾ 교육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아동들을 모아 성경과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성경구락부(Bible Club)운동도 중요하다. 프랜시스 킨슬러(Francis Kinsler)에 의해 1929년 겨울 평양에서 시작된 성경구락부(Bible Club)운동은 해방후 남한에서 특히, 북한지역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에서 많이 조직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다.³⁶⁾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교육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성경구락부에 모여들었고,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져갔다. 1953년 400개 구락부에서 1955년 전국적으로 696개의 성경구락부와 1,823명의 교사, 7만여 명의 학생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³⁷⁾

3.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의 개신교 사회운동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협동조합 운동, 이상촌 운동 등 자율적인 농촌운동에 앞장섰던 활동가들이 많이 있었다.³⁸⁾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나라 농촌의 대안으로서의 덴마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개신교의 농촌운동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영환³⁹⁾ 등의 주도로 1952년 한정협회(韓丁協會)가 설립되었다. 김영환은 한국전쟁 때 덴마크에서 파견한 병원선⁴⁰⁾을 방문하여 사

34) 박상진, 「해방 이후 기독교사립학교의 팽창 연구」, 『선교와 신학』 53,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1, 100쪽.

35) 임송자, 『배움과 좌절의 갈림길, 야학』, 서해문집, 2017, 41-43.

36) 윤은순, 「한국 기독교의 성경구락부 운동 전개와 학교로의 전환」, 『승실사학』 44, 승실사학회, 2020, 142-143.

37) 윤은순, 「한국 기독교의 성경구락부 운동 전개와 학교로의 전환」, 144.

38)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2009, 271-295.

39) 김영환은 승실전문학교와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창원교회 목사, 장로회 경남노회장(1942) 등을 역임하였다. 해방 후 흥국형제단 총무, 흥국시보사 주간, 한정협회 총무 부회장 고문, 한국기독교농촌봉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40)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덴마크는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의료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4개의 수술실과 356개의 병상이 구비된 병원선 ‘유틀란드리아’호를 한국에 파견했

령관 카이 해머리크(Kai Hamerich)를 만나 민간외교단체 설립에 합의를 보고 선상에서 결성식을 거행했다. 우리측 회장은 윤보선, 총무는 김영환이었고 정준, 김종대, 이영규, 김두만, 조향록, 김신실 등이 참여했다.⁴¹⁾ 한정협회는 창립 이후 첫 사업으로 1959년 4월 농촌 청년 8명을 선발하여 덴마크의 농촌실습을 위해 덴마크로 파견했다.⁴²⁾

김교신의 양정고보 제자로 덴마크 농촌운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했던 류달영은 1·4후퇴의 피난길에 대구에서 덴마크의 부흥사를 정리하여 1954년 『새 歷史를 爲하여: 덴마크의 敎育과 協同組合』을 출간하였다. 류달영에게 덴마크는 ‘약 백년 전에 불모의 황무지위에서 현명한 지도자들의 敎育과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와 협동으로 기적 같은 세계 최고의 민주 복지 국가를 건설’한 나라였다.⁴³⁾ 류달영의 『새 歷史를 爲하여: 덴마크의 敎育과 協同組合』는 인쇄도 장정도 보잘것이 없었으나, 놀라운 속도로 팔려나가 몇 해 동안에 이십육 판을 거듭하였으며 농민운동의 바이블로 애독되었고, 류달영은 5·16쿠데타 이후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이 되었다.⁴⁴⁾

김용기는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삼각산 농장을 정리하였고, 한국전쟁 중인 1952년 5월 평소 뜻을 같이하던 강태국, 한진교 등과 함께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의 황무지 6만평의 개간에 나섰다. 김용기는 에덴향 생활현장을 제정하는 등 지상의 낙원을 이루어 나가고자 노력했다.⁴⁵⁾ 김용기는 에덴향에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와 같은 농민학교를 세워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모범적인 농장을 건설하여 한국의 농민에게 모델로 제공하고자 했다.⁴⁶⁾ 김용기는 먼저 흙벽돌 교회를 세웠고, 강태국, 유호준 등과 함께 용인복음고등농민학원을 설립하였으나, 학교의 운영권을 둘러싼 분규가 발생하였다. 용인 에덴향을 떠난 김용기는 1954년 11월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풍산리로 이주하여 가나안 마을의 개척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개척지에서 김용기는 가나안교회를 설립하였고, 청소년들을 위한 중등교육과정의 소생학교(蘇生學校)를 설립하였으며,⁴⁷⁾ 농장을 개척하여 가나안복음농도원(福音農

다. 유틀란디아호는 한국전쟁 종전 후 1953년 10월 16일 덴마크로 귀향하기까지 한국에 3회에 걸쳐 총 999일간 파견되었으며, 4,981명의 UN군인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한국 민간인을 치료해 줌으로써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외교부 보도자료 2016. 6. 2.)

41) 한정협회 편, 『덴마크』, 사림원, 1983, 20; 김영환. 『한 민족의 가슴에 타는 불』. 보이스사, 1985, 209-210.

42) 한정협회 편, 『덴마크』, 67.

43) 류달영, 『소중한 만남: 나의 인생노트』, 솔, 1998, 228-229.

44) 김홍근, 『류달영 박사의 생애와 사상』, 상상의 숲, 2021. 175-177.

45)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93-101.

46)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93.

47)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121-124.

道園)으로 명명(命名)했다.⁴⁸⁾

해방 후 다시 내한한 선교사들은 남북의 분단으로 북한지역에서의 기독교 선교 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남한 지역에서의 새로운 선교과제를 찾기 위해 1949년 10월 대전에서 기독교연합봉사회를 설립하였다. 장소는 대전 근교(충남 대덕군 회덕면 중리)로 결정했으며, 복장로회 선교사인 안두화(Edward Adarms)가 이사장, 동생인 안두조(George Adarms)가 총무를 맡았다.⁴⁹⁾ 선교사들의 연합단체로 설립된 기독교연합봉사회는 사회사업 및 농촌사업 분야의 연합사업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1950년 4월 첫 사업으로 복음농민학교를 설립하고 시범농장을 마련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⁵⁰⁾ 기독교연합봉사회는 한국전쟁 후 일제 강점기 장로교회의 농촌운동을 주도했던 배민수와 결합하여 1953년 6월 배민수를 농민학원 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1954년 9월 기독교농민학원을 설립하였다.⁵¹⁾ 기독교농민학원의 첫 사업은 1954년 9월 전국농촌교역자수양회였으며, 12월에는 1개월 단기과정으로 농촌자도자강습회를 개최하였고, 1956년 3월부터는 8개월 과정의 장기강습을 시작하였다.⁵²⁾ 농민학원의 수업과정에 성경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⁵³⁾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愛神), 우리는 농촌을 사랑하자(愛農), 우리는 노동을 사랑하자(愛勞)’는 삼애주의(三愛主義)에 바탕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다.⁵⁴⁾ 이외에도 1957년 캐나다연합교회 선교사들이 전북 이리에서 농촌선교의 일환으로 마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높은 뫼 농장을 설립하고 협동조합 운동, 농촌문고 운동, 보건사업, 우량 종축 종자보급, 농사기술 전수를 위한 강습회 등을 실시하였다.⁵⁵⁾

한국전쟁의 혼란속에서 고아원 등 개인교의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충분한 연구와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⁵⁶⁾ 1949년 4월 한국기독교세계봉사회가 아펜젤러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해방후 일본과 중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가 귀국하는 해외동포들의 구호사업과 한국전쟁 기간에 긴급구호 활동으로 이재민

48)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137-139.

49) 연구홍, 『기독교연합봉사회 50년사』, 기독교연합봉사회, 1999, 40-41.

50) 한규무, 「1950년대 기독교연합봉사회 의 농민학원 설립과 운영」, 『한국기독교와 역사』 33,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0, 112.

51) 한규무, 「1950년대 기독교연합봉사회 의 농민학원 설립과 운영」, 114-119.

52) 한규무, 「1950년대 기독교연합봉사회 의 농민학원 설립과 운영」, 120-122.

53) 한규무, 「1950년대 기독교연합봉사회 의 농민학원 설립과 운영」, 123.

54) 한규무, 「1950년대 기독교연합봉사회 의 농민학원 설립과 운영」, 125.

55) 이태영, 「기독교농촌개발원의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 『농촌과 목회』 15, 농촌과 목회 편집위원회, 2002, 197-198. 높은뫼 농장은 1978년 기독교장로회 총회로 이관되었으며, 기독교농촌개발원이 되었다.

56) 한규무, 「건국과 기독교사회사업」,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 북코리아, 2014, 243-329.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기독교 사회사업의 실태와 공과(功過) 및 ‘건국’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갖는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호활동과 전쟁미망인을 위한 탁아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전쟁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해 부상당한 이들을 돕는 의수족 사업을 비롯하여 결핵퇴치 사업, 농촌개발 사업, 가축도입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⁵⁷⁾ 이외에 기독교연합봉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1953년 8월 한국인수족절단자직업교도원을 설치하고 수족절단자 직업 교도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고아들을 돌보는 구세군후생학원(1953년 9월), 충남영아원(1955년 5월), 결핵환자 요양을 위한 결핵요양원(1954년 2월)등을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였다.⁵⁸⁾ 김교신과 이승훈 등의 영향을 받아 이찬갑이 주옥로와 함께 설립한 풀무학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찬갑은 덴마크 그룬트비의 사상을 '그 나라의 역사와 말'로 요약하여, 오산학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덴마크 국민고등학교를 모델로 1958년 중학교 과정의 고등공민학교로 풀무학교를 설립하였다.⁵⁹⁾

4. 1960년대의 개신교 사회운동

일반적으로 한국 개신교의 사회참여는 4·19혁명 이후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 개신교계는 한국전쟁 후 1950년대 후반의 급변하는 한국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이해나 신학적 성찰이나 발언이 없었다. 따라서 4·19혁명에 대한 신학적 성찰 역시 부족했으며, 5·16 쿠데타에 대하여는 신학의 부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1963년 3월 박정희의 민정이양 의사 번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한국기독교연합회의 공개서한 이외에는 군사정권의 장기화를 논한 기독교계의 발언을 찾기 어렵다.⁶⁰⁾ 1964년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이 진행되자 개신교는 회담 자체가 굴욕적이며, 민족적 위기라고 판단하고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1965년 4월 한국기독교연합회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국교회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일 기본조약이 굴욕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된 직후인 1965년 7월에는 김재준, 한경직, 강신명, 강원룡, 함석헌 등 목사 및 개신교계 인사 215명이 연서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무력탄압의 중지, 부정부패의 일소와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국내정치의 쇄신 등을 요구하였다. 1965년 7월 한 달 동안 전국의 교회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기본조약 비준 반대의 뜻을 같이하였으나, 비준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다.⁶¹⁾

57) 연규홍,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40년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2003, 34-37.

58) 연규홍, 『기독교연합봉사회 50년사』, 59-60.

59) 풀무학교의 근대 교육사적 의의 등에 대하여는 정해진, 「풀무학교의 근대 교육사적 의의」, 『한국교육학연구』 제19권 3호, 안암교육학회, 2013. 참조

6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 (I)』, 44-45.

6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 (I)』, 47-48.

개신교계는 1960년대 후반기를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에 대해 심층적으로 성찰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기독교연합회는 1967년 6·8총선에 나타난 부정선거에 대하여 「6·8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문제가 아니요, 국민주권에 대한 시원적(始原的)인 침해’라고 주장하는 등 국민주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와 저항을 시작하였다.⁶²⁾ 6·8 부정선거로 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삼선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개신교 진보세력은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1969년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김재준이 위원장에 추대되었고, 개신교 인사들은 영광회를 조직하고 개헌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진보적 개신교와는 달리 보수적 개신교 인사들은 3선개헌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을 둘러싸고 개신교내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⁶³⁾

1960년대의 개신교 학생운동은 기존 교회의 무력함에 대한 회의와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대학사회에서부터 시작된 개신교 학생운동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모색은 개교회의 대학생회에도 파급되었다.⁶⁴⁾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KSCC)에 속한 단체들을 통합하여 1969년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이 출범하였으며,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을 시작했다.⁶⁵⁾ 학생사회개발단 운동은 그간 복음주의적, 교회 중심적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실천내용과 명확한 사회의식을 갖춘 운동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⁶⁶⁾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신교의 산업전도와 도시빈민운동이 시작되었다. 개신교의 산업전도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세확장의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며,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선교운동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노동문제, 도시빈민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1968년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가 창립되었으며, 1970년대의 도시산업선교로 이어졌다.

이외에 개신교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1960년대 개신교의 농촌운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새마을운동을 담당했던 류태영은, 박정희가 주도했던 경제발전의 배경에 ‘한국 역사상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정신 개혁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새마을 운동이 있었으며, 이 운동에 기독교 정신이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을 주도적으로

6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 (I)』, 51-52.

63)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1960-1987』, 92-94.

6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68-74.

6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75-84.

66)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1960-1987』, 102-103.

추진했던 핵심 참모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이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를 부흥시킨 선진 복지국, 덴마크를 그 기본 모델’로 했다는 것이다.⁶⁷⁾ 박정희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평가와 논의가 분분하고, 특히 새마을운동과 개신교 농촌운동 사이의 관계는 특별히 연구된 것은 없지만 1950년대에 이어 1960년대에도 개신교의 농촌운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용기의 가나안농군학교는 1962년 2월 광주군수가 추천한 농촌지도자 29명의 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62년 2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었던 박정희가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하여 시찰하였고, 교육 중이던 학생들을 격려하였다.⁶⁸⁾ 박정희의 가나안농군학교 방문 이후 읍·면장, 농촌지도자들의 방문이 계속 이어졌으며, 김용기는 서울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설교하였고, 전국을 순회하며 영육생활부흥회라는 이름의 부흥회를 개최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⁶⁹⁾ 김용기의 가나안 농군학교는 일제 강점기 개신교 지도자들의 농촌운동에 바탕을 둔 금육적 정신운동이었으며, 후일 새마을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⁷⁰⁾

특히 연구가 필요한 것은 개신교 농촌운동과 재건국민운동의 관계이다. 박정희는 5·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6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승공(勝共) 민주이념의 확립, 내핍생활(耐乏生活)의 려행(勵行), 생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 국민도의(國民道義)의 양양(昂揚), 정서관념(情緒觀念)의 순화(醇化), 국민체위(國民體位)의 향상’ 등의 실천 요강을 달성하기 위해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설립했다.⁷¹⁾ 박정희의 거듭된 요청을 받은 류달영은 유진오의 뒤를 이어 1961년 9월 재건국민운동 본부장에 취임하여 재건국민운동을 시작했다. 류달영에게 덴마크의 그룬트비는 신앙의 대상에 가까웠으며, 덴마크는 이상(理想)이었으나, 덴마크와 우리나라가 다른 점은 남북의 이념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동양의 덴마크를 이 국토에 건설해보겠다는 정열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한국의 그룬트비의 구실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였다. 나의 숙소에는 1956년에 덴마크에서 사가지고 온 대형의 그룬트비 사진을 걸어 놓고 출근 전에는 한 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집을 나섰다. 국민운동은 단순한 덴마크의 흉내가 아니라 덴마크 부흥의 교육과 협동 사업을 한국화해서 우리나라를 재건하자는 것이었다. 한국과 덴마크가 크게 다른 점은 덴마크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일이었지만 한국은 분단된 남북의 처절한 이념 전쟁에서 이겨내는 일이었다.⁷²⁾

67) 류태영, 「새마을운동의 발상과 기독교 정신」,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222.

68)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139-143.

69)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145-150.

70) 한석정, 『만주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244.

71) 재건국민운동본부, 『재건국민운동: 2주년의 발자취』, 재건국민운동본부, 1963, 16.

류달영은 재건국민운동이 형식적으로는 관(官)기구 이지만 실상은 민간운동으로 진행하고자 국민운동본부내에 중앙위원회를 설치하여 김재준, 류영모 등 50여명의 중앙위원을 위촉하였다.⁷³⁾ 재건국민운동본부는 1964년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 라는 민간조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재정기반이 취약해져 결국 해체되었다.⁷⁴⁾

재건국민운동이 시작되자 한국 교회의 농촌운동 조직 또한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여 재건을 농촌개발로 정의하고 농촌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정협회는 1959년 4월 덴마크 농촌실습을 위해 8명을 덴마크에 파견한 이래, 한정협회의 주관으로 1962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명의 농촌실습생을 덴마크에 파견하였고, 1962년 9월 제1차 실습생들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덴마크 농업실습기』 제1집을 발간하였다. 1964년 5월부터 한정협회는 덴마크 정부의 초청을 받아 농업기술 교육생 파견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84명을 덴마크에 파견하였다⁷⁵⁾ 한정협회는 재건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덴마크 발전사를 연구하고 1963년 5월 귀국한 김영환의 덴마크 시찰보고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그때만 해도 덴마크 시찰보고 강연이라면 인기가 매우 높았다. 가는 곳마다 집회는 대성황이었다. 목포, 김천 등 몇 곳은 극장복도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극장 밖에까지 장소가 마련되어 청중을 수용했다. (중략) 가는 곳마다 저녁은 그 지방교회 연합으로, 다음날 오전은 군민을 위해 각각 강연회가 열렸고, 때로는 그 지방 중고등학교의 초청을 받아 전학생을 운동장에 모으고 학교에서 강연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래서 보통 하루 두 세 번씩 강연회를 가지게 되었다.⁷⁶⁾

김영환은 모두 741회의 강연을 개최했으며, 강연한 내용을 『지도자의 고향』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고,⁷⁷⁾ 1966년 한국기독교농촌지도자협회(후에 한국기독교농촌봉사회로 개칭)를 결성하였다. 한국기독교농촌지도자협회 이사장에는 김영환, 총무에는 장순철이 선임되어 활동했다.⁷⁸⁾ 류달영이 주도한 재건국민운동에 대하여 재건국민운동본부를 국가와 민족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했던 지식인들과 군사쿠데타 세력을 일시적으로 결합했던 공간이었으며, 그의 스승 김교신과 무교회주의자들이 구상하던 사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개신교 사회운동의 실천과

72) 류달영, 『소중한 만남:나의 인생노트』, 255.

73) 김홍근, 『류달영 박사의 생애와 사상』, 202-203.

74) 한석정, 『만주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242-248.

75) 한정협회 편, 『덴마크』, 67: 72-75.

76) 한정협회 편, 『덴마크』, 21.

77) 한정협회 편, 『덴마크』, 21-22.

78) 김영환, 『한 민족의 가슴에 타는 불』, 259.

관련하여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⁷⁹⁾

이외에도 한국교회 자체의 힘을 모아 국내의 봉사사업을 전개하고자 1963년 7월 한국기독교봉사회가 설립되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는 개신교계의 봉사사업을 한국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한국기독교연합회에 가입된 예수교장로회, 기독교장로회, 감리교회, 구세군, 성공회의 5개 교파가 주축이 되고, 그 외 대한기독교서회, 대한성서공회, 기독교교육협회등을 비롯한 기독교 연합기관과 송실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을 비롯한 20개 기독교 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안동성소 병원 등이 참여하였다.⁸⁰⁾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는 재해구호사업, 질병퇴치사업과 후생시설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⁸¹⁾

5. 나가는 글

여러 이유로 학계의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잊혔으나, 해방 후 정부 수립기에 당시 우리 민족의 과제였던 농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신교계의 사회운동이 계속되었음은 분명하다. 강성갑, 김용기, 김영환, 배민수, 유재기, 류달영 등의 실천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들의 실천 등을 통해 해방 후 정부 수립기 개신교 사회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한다면,

첫째, 해방 후 정부 수립기의 개신교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의 부족은 ‘한국 개신교의 과거 청산 문제를 중립적 입장에서 통사적으로 다루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강인철의 연구를 인용한다면,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15년은 극적인, 그리고 긴박하면서도 현란할 정도로 흥미진진한 수많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거대한 드라마’였다. 이 시기를 “가장 거칠게 말한다면, 개신교의 역사적·정치적 선택 문제는 (대외적 차원에서) ‘냉전적 반공-친미-분단 체제’의 형성에 대한 개신교 교회들의 기여, 그리고 해방 직후부터 형성된 ‘친일파-미군정-이승만 정권의 동맹’에 대한 개신교 지도자들의 참여로 집약’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⁸²⁾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반성, 회개(悔改)없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의 개신교계의 기여를 강조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이나,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한 꿈에 넘어간 사

79)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책방, 2017, 140-143.

80) 연규홍,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40년사』, 41-45.

81) 연규홍,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40년사』, 45-51.

82) 강인철, 「해방 이후 4.19까지의 한국교회와 과거 청산 문제: 의제 설정을 위한 시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2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6, 69-71.

람들과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 소위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한국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으며, '박정희의 독재가 기독교의 진보와 보수를 가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진보 개신교계의 주장은 모두 한계가 분명하다.⁸³⁾

유재기의 기독교사회주의에 근거한 농촌운동과 기독교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 희생당했던 강성갑의 농촌운동이 잊혀진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개신교 역사에서 이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개신교계의 진보든 보수든 3·1운동에 앞장섰다는 개신교의 민족운동 참여를 자랑하지만, 이후의 독립운동사에 개신교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진보 개신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익환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념의 문제에서 개신교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⁸⁴⁾ 부족하지만 제주 4·3과 개신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주 4·3의 진압을 거부하고 일어났던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손양원의 순교신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⁸⁵⁾ 해방 후 정부 수립기의 역사를 주제로 1979년 10월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1권이 출간된 이래 남북의 분단과 한국전쟁, 이승만 정권에 대한 현대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6년 1월에는 이러한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출간되는 등 한국 현대사의 역사 이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방 후 정부 수립기의 개신교 역사에 대한 논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통일문제 등에 대해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다면,⁸⁶⁾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남북의 분단과 한국전쟁에서의 개신교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남북의 분단과정과 원인에 대한 치열한 논쟁 없이 통일문제에 대한

83) 김남식·김동완, 『40년의 벽을 넘어-보수신학자와 진보운동가의 역사 對話-』, 대한기독교서회, 2006, 28-29.

84) 문익환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상고이유서에서 "민족주의에 접목된 기독교 신앙으로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동시에 연해주에서 불어 들어오는 사회주의의 바람도 맞아야 했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맞부딪쳐 소용돌이치는 곳이 바로 제가 자라난 북간도라는 고장일 것입니다. 저의 생애에 세 번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에 밀리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소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민족애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세워진 학교 졸업반 때, 그 학교는 마침내 사회주의자들의 공격 앞에 무너집니다. 그것은 정말 비통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문익환, 『가슴으로 만난 평양 : 문익환, 유원호 변호인단 상고이유서』, 삼민사, 1990, 14.

85) 여순사건에 관하여 대부분의 교회사에서는 반란군에 의해 많은 기독교인이 희생당했다고 강조하지만, 최근 관련 연구에 의하면 유호준, 정규오 목사 등의 회고록과 당시 종교 위문단으로 현지에 파견되었던 윤을수 신부의 기록 등에는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주철희,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흐름출판사, 2017. 4부 여순항쟁과 기독교 참조.

86) 윤경로, 「한국근현대사의 전개와 한국 기독교 수용의 특징과 의의」,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57.

태도와 자세를 결정한다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태도와 입장으로 개신교계의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는 기존의 역사이해와, 개신교내의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해방후 정부 수립기 개신교 사회운동의 모범은 덴마크였다. 많은 사람이 덴마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백년전의 덴마크 국민들이 국제정세의 악조건과 불모(不毛)의 국토의 이중적인 시련과 잘 싸워서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의 낙토(樂土)를 이룩'했기 때문이었다⁸⁷⁾ 일제 강점기 김교신 등 무교회주의자들과 개신교 농촌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덴마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1970년대 이후 오랫동안 잊혀졌으나, 지난 2014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의 출간 등으로 행복한 나라 덴마크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다. '성공한 농업국가' 덴마크에 대한 관심이 '행복한 나라' 덴마크에 대한 관심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면, 그러한 덴마크를 따라 배우고자 오랫동안 노력했던 개신교 사회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행복한 나라 덴마크를 만든 것은 개신교 정신에 근거한 그룬트비의 실천이었다. 개신교 사회운동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그룬트비를 자임(自任)하며, 그룬트비의 주장을 삼애(三愛)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고 실천했다. 개신교 국가였던 덴마크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개신교 국가가 아니었기에, 김교신은 그룬트비의 '개신교 정신'을 '도덕'으로 바꾸어 실천을 강조했지만, 강성갑, 김용기, 유재기 등은 개신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에 앞장섰다.⁸⁸⁾ 특히 강성갑은 '국민신앙(國民信仰)'이라는 이름의 과목을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개신교 정신을 가르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등 개신교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것이었다. 해방 후 정부수립기의 개신교 사회운동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잊혀 졌을 뿐만 아니라 한계 또한 분명하지만, 1970년대 개신교 사회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1970년대의 개신교가 민주화운동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했음은 분명하지만, 개신교 민주화운동에서 개신교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즉 '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개신교 단체나 인사들의 선언문은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 보다 역동적인 역할을 했다가보다는 단지 개신교의 교리로 운동을 포장하거나 이를 그 안에 편입시킨 듯한 인상'을 주는 듯하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지도자들 역시 "그 초점이 대부분 정계 재야인사들과 함께 그 운동을 이끌고 탄압받았던 '민주화'에 있지 '개신교'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단지 '민주화 인사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개신교적 정체성이 좀 더 지켜질 수는 없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는 것이다.⁸⁹⁾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

87) 임영식, 『덴마크 農業實習記』, 韓丁協會, 1962, 1.

88) 김교신·노평구, 『김교신전집 1: 인생론』, 부키, 2001, 197. 이 글은 『성서조선』 1937년 9월호에 「예언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이었다.

만, 1970년대 개신교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해방후 정부 수립기의 개신교 사회운동은 개신교의 정체성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신교적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개신교 사회운동의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철, 「해방 이후 4.19까지의 한국교회와 과거 청산 문제: 의제 설정을 위한 시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2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6
-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책방, 2017
- 김광현, 『이 풍랑 인연하여서』, 성서교재사, 1993
- 김권정, 「해방 후 유재기의 국가건설운동과 농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 김교신·노평구, 『김교신전집 1: 인생론』, 부키, 2001
- 김남식·김동완, 『40년의 벽을 넘어-보수신학자와 진보운동가의 역사 對話』, 대한기독교서회, 2006.
- 김명배, 『(해방 후)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1960-1987』, 북코리아, 2009
-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2009
- 김영환, 『한 민족의 가슴에 타는 불』, 보이스사, 1985
- 김예림·김성연 편, 『한국의 근대성과 기독교의 문화정치』, 혜안, 2016
-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규장문화사, 1998.
- 김재준, 『金在俊全集. 13. 범용기(1): 새 역사의 발자취』, 長空金在俊牧師기념사업회, 1992
- 김흥근, 『류달영 박사의 생애와 사상』, 상상의 숲, 2021
-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가나안농군학교, 2014
- 류달영, 『소중한 만남: 나의 인생노트』, 솔, 1998
- 문익환, 『가슴으로 만난 평양 : 문익환, 유원호 변호인단 상고이유서』, 삼민사, 1990
- 박명수·안교성·김권정 외 엮음,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 북코리아, 2014
- 박상진, 「해방 이후 기독교사립학교의 팽창 연구」, 『선교와 신학』 53,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1

89) 전명수, 「1960-70년대 한국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특성과 한계: 종교사회학적 접근」, 『한국학연구』 35,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0, 354-355.

- 박형규,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창비, 2010
- 방기중, 『裴敏洙의 農村運動과 基督教思想』,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편, 『스승의 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4
- 손봉호·조성표 편,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 심진구, 「향토교육의 선구자 강성갑에 관한 사례연구」, 『인천교대논문집』 3, 1968
- 연규홍, 『기독교연합봉사회 50년사』, 기독교연합봉사회, 1999
- 연규홍,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40년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2003
- 우월문집편집위원회 편, 『又月文集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 윤은순, 「한국 기독교의 성경구락부 운동 전개와 학교로의 전환」, 『승실사학』 44, 승실사학회, 2020
- 이일선, 『理想村』, 農村文化社, 1947
- 이태영, 「기독교농촌개발원의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 『농촌과 목회』 15, 농촌과 목회 편집위 위원회, 2002
- 임송자, 『배움과 좌절의 갈림길, 야학』, 서해문집, 2017
- 임영식, 『덴마크 農業實習記』, 韓丁協會, 1962
- 주대명 등 엮음, 『내가 만난 주태익』, 바위, 1995
- 주철희,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흐름출판사, 2017
- 전명수, 「1960-70년대 한국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특성과 한계: 종교사회학적 접근」, 『한국학연구』 35,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0
- 재건국민운동본부, 『재건국민운동; 2주년의 발자취』, 재건국민운동본부, 1963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 (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관련 문헌 해제: NCKK 100주년 기념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보존사업 선행연구 조사 보고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9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 한규무, 「1950년대 기독교연합봉사회의 농민학원 설립과 운영」, 『한국기독교와 역사』 33,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0
- 한석정, 『만주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 韓丁協會 編, 『그룬드비傳』, 조알사, 1956
- 한정협희 편, 『덴마크』, 사림원, 1983
- 허현, 「지역사회학교 제6회」, 『새교육』, 1957. 6
- 홀거 베그트롭 외, 이기백 역, 『새역사의 창조: 덴마크國民高等學校와 農村社會의 發展』, 東洋社, 1959.
-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선인, 2020.

“<사회신조>를 통해 본 해방 후 정부 수립기의 개신교 사회운동”에 대한 논찬

이 논문은 기독교 측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고 평가되는 ‘정부 수립기 개신교 사회운동’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자료가 충분치 않은 환경에서 세 시기로 세분하여 기술한 것은 시대변화의 흐름에 주목하게 만든다. 동시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연구 주제로 인식되고 이를 꺼리는 학계 분위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 요구도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학문적 용기를 내주신 연구자에게 감사드린다.

다만 연구자가 서론에서 “시론 성격의 글”로 소개했듯이, 이 논문이 학문적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으로 논찬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논문 제목이 연구내용에 부합한 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제목에 명시된 <사회신조>가 본문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논문의 상당 부분이 농촌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서술된 점도 제목이 적합한 것인지 질문하게 만든다. 개신교 사회운동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고 다양하며 가변적인 측면이 있다. 1920-30년대 사회문제가 반영된 <사회신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모순들, 특히 인권, 여성, 아동, 노동, 임금 문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언급되고 있다. 논문 제목대로라면 <사회신조>라는 프리즘으로 해방 직후 사회운동의 범주와 범위를 설정하여 들여다보고, <사회신조>가 해방 공간에서 어떻게 계승 확장되거나 변용 또는 퇴조되었는지 등을 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정부 수립기 사회운동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추적한 것은 시대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복합적 요인들이 중첩된 혼란기는 뭉뚱그려 다루어지기 쉬운데 전쟁 전후 그리고 1960년대를 구분하여 접근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개별적 차원의 시도나 개별 현상들을 서술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시대마다 다변화되어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성격과 방향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논문의 지면 관계상 담지 못한 시대 흐름의 특징이나 방향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린다.

3. 개신교 사회운동을 추적할 때 다양한 접근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이 논문의 경우, 해방 직후에는 농촌운동(김용기, 유재기, 강성갑 등), 50년대에는 기독교 봉사단체들의 구호사업(기독교연합봉사회, 한국기독교세계봉사회 등), 60년대에는 기독교의 농촌운동이 새마을 운동으로 흡수되어 재건국민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서술한다. 그렇다면 논문에서 다룬 개별적 차원의 운동 또는 신생조직이나 단체들의 운동이 <사회신조>를 마련하는데 일조한 기존의 기독교 단체나 조직들과 어떻게 연계 또는 연동되었는지 궁금하다.

4. <사회신조>(1932)를 채택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역사성을 잇는 NCKK는 1970년 21차 총회에서 헌장 개정을 통해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기구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YMCA, YWCA,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등의 개신교 사회운동 단체들이 탈퇴하고 6개 교단연합체(예장통합, 기장,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로 재구성되었다. 그렇다면, 1960년대까지 '한국기독교연합회'라는 이름 아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함께 했던 멤버 교회들, 개신교 연합기관 내지는 사회운동 단체들, 청년운동 단체들은 정부 수립기 기독교 사회운동을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전개해나갔는지 궁금하다. 동시에 해방 공간에서 기독교 신생조직들과 단체들이 전개해나간 사회운동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 과정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NCKK 전신)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5.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독교 농촌운동의 역사적 축적물이 새마을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는 통찰력과 분석이 매우 흥미롭다.(p. 10-11) 기독교 농촌운동은 민간운동이었고 덴마크 모델을 지향한 특징이 있다. 반면에 박정희 정권이 실시한 새마을 운동은 관이 주도한 근대화 운동의 일환으로 관제 운동의 성격을 띠며 일본 모델을 지향한 특징이 있다. 성격과 목적이 달랐던 두 운동이 해방 후 산업화 과정에서 결합되는 지점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마지막으로 정부 수립기 개신교 사회운동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물꼬를 열고, 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연구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신조>를 통해 본 197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사회운동 -그 의미와 과제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1932년 9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朝鮮耶蘇教聯合共議會)¹⁾ 제9차 총회가 가결한 <사회신조(社會信條)>의 맥락 안에서 197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의 노정을 성찰하고자 한다. 백낙준은 <사회신조>가 가결된 1932년의 환경에 대해 일제의 수탈정책의 가속화로 경제는 피폐해지고, 국민의 유리(流離)와 농민들 간의 소작쟁의, 노동자들의 동맹파업과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잇따르던 시대였다고 말한다. 또한 당시 사상계 역시 크게 혼란하여 공산주의의 계급투쟁이 들끓었고, 과격사상과 사회적 욕구불만이 청년들 안에 크게 유포되고 있었다. 민족 수난 정도가 가혹해질수록 한국교회는 새로운 각성을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신앙의 결단 안에서 사회개혁과 실천적 변화에 대해 요구 받게 되었고, 본<사회신조>가 가결되었다고 백낙준은 말한다.²⁾ 이에 비해 민경배는 연합공의회(聯合公議會)의 <사회신조>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한다. 그는 <사회신조>의 내용 속에는 민족의 관념적 전개가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 내용이 일본 교회의 사회신조와 대동소이하야, 당시 제국교회와 식민지 교회의 사회인식이 비슷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한국교회 사회운동의 비극적인 굴종과 굴곡 그리고 한계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다.³⁾ 민경배의 날카로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지난 90여 년의 사회발전 과정을 되돌아볼 때, 1932년 연합공의회(聯合公議會)의<사회신조>는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1) 1924년 9월 24일 새문안교회에서 창설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朝鮮耶蘇教聯合共議會)는 한국개신교 주요 교파교회와 개신교연합사업기관 및 재한 여섯 개 복음주의선교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개신교의 대표적 공의기관이었다. 이 공의회는 외부적으로는 세계개신교기구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구성원이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교파교회와 교계 여러 연합사회기구의 공동사업을 협의하는 협의체로 기능했다. 1931년부터 그 명칭을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朝鮮基督教聯合公議會)' 바꾸어 활동했고, 1938년 해산되었다. 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모체가 된다. 백낙준, "한국기독교회의 사회신조," 『한국교회사학회지』 1(1979), 8.

2) 앞의 책, 11-12.

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341-342.

에 이르기까지 한국기독교의 사회개혁운동에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실천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특별히 연합공의회<사회신조>가 어느 특정 교파나 진영의 신조가 아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의 신조로서 지난 90여년 역사 안에서 한국 기독교의 사회개혁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70-80년대 한국개신교의 사회운동 노정을 살피고 그 의미와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환경을 되짚어보고, 그 시대가 한국교회에 요구했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볼 것이다. 이후 1970년대의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운동 중 몇 가지를 범주화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산업선교, 도시빈민선교와 농민선교, 인권 및 민주화 운동의 노정을 살피려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국개신교 사회운동의 노정을 살펴본다. 먼저 1980년대 사회운동의 기점이 되는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교회의 대응을 살피고, 80년와 90년대를 이어 한국교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통일·민족화해 운동의 노정을 또한 살펴볼 것이다. 이후 <사회신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와 과제를 부여하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2. 1970년대 개신교 사회운동

1) 한국사회의 환경과 시대적 요구

한국사회는 1963년 박정희군사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청구권 자금의 유입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했다.⁴⁾ 수출주도의 국가경제로 인해 2차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함에 따라 전통적인 농업부문은 쇠퇴하고, 다수의 노동력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 빈민촌을 형성했다. 1963년부터 1968년까지 평균 8~9%의 높은 성장률을 거둬왔던 한국경제는 1969년부터 불황 국면에 들어갔다. 이는 1960년대의 과도한 외채와 정부주도형 종속적 자본축적에 의한 구조적 불황 때문이었다.⁵⁾ 경제적 위기는 사회적 계층간 갈등을 불러왔고, 노동자 계층의 궁핍화로 이어졌다. 저곡가, 저임금, 비인간적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했고, 곧 사회적 문제로 폭발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청년 재단사인 전태일의 분신사건은 개신교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이 민중의 생존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었다.⁶⁾ 이후 학생운동

4) 역사학연구소,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서울:도서출판 서해문집, 2004), 357-365.

5) 196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률은 1969년 13.8%를 최고로 1970년 7.6%, 1972년 5.8%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GNP 가운데 총투자율도 1969년 30.8%, 1972년 24.2%로 떨어졌다. 역사학연구소,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서울:도서출판 서해문집, 2004), 368.

은 노동운동과 결합을 모색해갔고, 재야운동그룹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지원, 노동자 의식화, 정부의 노동통제 및 노동운동탄압에 대한 비판, 도시빈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치위원회 구성 등 사회, 경제적 모순의 비판 안에서 민중운동과의 결합을 모색해나갔다. 이와 같은 결합은 자연스레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과의 제휴를 통한 독재 정권의 경제정책과 분배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반정부 저항세력들의 연대는 1971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나타났다.⁷⁾ 이에 박정희 정권은 외부적으로는 자본축적 위기를 탈피하고, 내부적으로는 정권의 저항세력들을 제어하기 위한 파격적 방법을 찾게 되었으니, 정치적으로는 1972년 유신체제의 등장이고, 경제적으로는 '8·3긴급금융조치'와 중화학공업 정책으로의 기반산업의 전환이었다. 당시 한국교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노동자와 도시빈민 그리고 농민을 대상으로 산업선교, 도시빈민선교, 농민선교에 나섰다. 이는 1932년<사회신조>가 지향하는 방향과 같은 시대적 요구 앞에 한국교회가 섰음을 보여준다.⁸⁾

2) 도시산업선교

산업선교는 195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2회 총회가 공장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산업전도 착수를 결의하여 서울 영등포지역에서 활동한 데서 시작한다.⁹⁾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5개 개신교 교단을 중심으로 계몽·홍보활동, 선교기구의 설립, 공장목회, 평신도 조직 육성, 실무자 양성, 근로 현장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 등을 주도했다. 초기 산업전도는 순수 복음전도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전도 실무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노동 윤리를 내면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1960년대 접어들면서 기존의 산업전도 방식은 한계에 달했고, 산업전도 실무자들은 고용주편에 서 있는 세력으로 인식되어 노동자들에게 외면당했다. 이후 1968년에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4차 총회에서 정리된 '하나님 선교(Missio Dei)' 신학의

6) 정병준,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6(2022/3) 18-19.

7)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서울: 북코리아, 2009), 117-119

8)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사회신조 초안은 12개의 신조로 구성된다. 그 내용은 1) 인류의 권리와 기회평등 2) 인종 및 민족의 무차별 대우 3) 혼인신성, 정조에 남녀 동등책임 4) 아동의 인격존중, 소년 노동의 금지 5) 여자의 교육 및 지위 개선 6) 공장폐지 금주축진 7) 노동자교육, 노동시간축소 8)생산 및 소비에 관한 노동조합 장려 9)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협조기관 설치 10)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고율 누진세의 제정 11)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보장법의 제정 12) 일요일 공휴법의 제정, 보건에 관한 입법 및 시설 이다.

9)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 (하)』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649.

영향 아래 산업 전도는 도시산업선교(Urban Industrial Mission)로 전환되어 복음화와 사회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선교 정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¹⁰⁾ 도시산업선교가 노동자와 빈민 등 근대화에서 소외된 민중의 권익을 대변하게 되자 저임금 정책 아래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기업이나 정치권력과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박정희정권은 중앙정보부를 통한 직접적인 탄압과 함께 여론 및 교회지도자들을 동원하여 도시산업선교의 활동을 방해했다.¹¹⁾ 산업선교에 대한 정부의 공격과 용공활동으로의 매도에 대응하여 1978년 9월 한국기독교협의회는 “산업선교 신학선언”을 발표하여 산업선교의 신학적 근거를 밝히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선한 사마리인의 정신을 따라 시정하려는 선교활동임을 천명했다.¹²⁾ 도시산업선교 활동은 자연스럽게 박정희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특히 1979년 8월 YH무역사건은 박정희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다. 정부는 도시산업선교를 YH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산업선교의 실무 목사들이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고 매도하였다.¹³⁾ 이로 인해 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인명진목사, 사회선교협의회 부위원장 문동환목사, 전 고대교수 이문영교수, 서경석 사회선교협의회 총무, 시인 고은 등 8명이 구속되었다.¹⁴⁾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곧 한국 교회의 저항을 불러왔다.¹⁵⁾ 산업선교 활동은 198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으나 그 활동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7회 총회(1982)는 도시산업선교회의 명칭을 다시 ‘산

10) 임희국,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276-277.

11) 정부와 기업은 “도산(倒産)도산(倒産)한다”고 비난하며, 도시산업선교를 용공으로 몰았다. 일부 교회들도 도산을 불온시하여 교회로부터 내몰려 하였다. 권진관, “1970년대 산업선교 활동과 특징: 2세대 사업선교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22(2005/03), 74.

12) 한국기독교역사학회편, 『한국기독교의 역사III: 해방이후 20세기 말까지』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231.

13) “왜곡보도중지하라.” 『한국기독교공보』, 제2면, 1979.08.25.

1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조사연구자료19(서울: 기사연, 1984), 211.

15) 8월 17일 새문안교회 대학부 회원 50여 명이 교회에서 YH사건 관계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19일에는 연동교회 대학부 20여 명이 저녁예배 후 예배당에서 선교 자유 침해 중지를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 8월 21일 기청 전국연합회는 “산업선교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는 기독교인의 당연한 응답이며 당국이 이를 불온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선언하고, 기청 사무실에서 선교자유 수호를 위한 철야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예정청년회 서울지구 협의회도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감리교 청년회 전국연합회도 8월 22일 감리교 총리원 사무실에서 선교 자유 수호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산업선교에 대한 탄압은 이 땅에 복음을 전달할 선교의 자유마저 억압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8월 23일에는 예정청년회 전국연합회가 YH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24일에는 예정, 기청, 감리, 복음, 성공회, 구세군 등 6개 교단 청년회원 1백여 명이 ‘YH사태와 선교자유 수호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기독교회관에서 연합 철야농성을 벌였다. 조병호, “돋보기교회사/민중의 아픔에 동참한 기독교청년들,” 『한국기독교공보』, 제13면, 2004.09.11.

업 전도회'로 바꾸었고, 기존의 도시산업선교 역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영등포 산업선교회관 안에 성문밖교회가 창립되었고 노동 상담소가 들어섰다.¹⁶⁾

3) 도시빈민선교와 농민선교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과 함께 1970/80년대 한국교회의 사회운동의 노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도시빈민선교와 농민선교이다. 도시빈민선교는 1969년 8월 미국 연합장로회 선교사 화이트(H.White)가 내한하여 연세대학교 내에 '도시문제연구소'를 만들고, 노정현박사가 소장이 되어 도시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실무자 훈련에 주력함으로써 시작되었다.¹⁷⁾ 1960년대 경제호황으로 이루어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 노동자들은 무작정 도시로 몰려들었다. 1967년 당시에 무허가 건물은 23만 3천 가구였고, 이 건물에 거주하는 도시 빈민은 127만 명에 달했다. 1970년 초가 되자 당시 서울 인구 600만 명 가운데 대략 30%가 무허가 판자촌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¹⁸⁾ 정부는 제대로 된 행정계획도 없이 대규모의 판자촌을 철거했고, 약 10만 명의 철거민들이 급조된 위성도시인 경기도 성남 등으로 강제이주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어떠한 주변시설도 없이 산 중턱에 천막만 들어찬 이주단지의 열악함에 분노한 이들은 1971년 8월 10일 소위 경기도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불리는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¹⁹⁾ 이를 계기로 1971년 9월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서울의 빈민지역이었던 답십리에 센터가 설립되는 등 도시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는 빈민지역에 가서 일할 실무자를 파송하여 청계천 철거민 이주, 통일상가 세금문제, 지역사회조직과 훈련등을 실시했으며(1971년), 이듬해에는 광주(성남)단지, 인천동구지역, 독방지역(송정동), 남대문 시장지구 등에 전 실무자를 각각 선정하여 본격적인 도시선교를 시작했다.²⁰⁾ 본 위원회는 자신들의 사업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서울의 이상비대도시화 현상은 전 국가적 문제이다. 조국 근대화 공업입국 등의 구호 밑에 새롭게 건설되는 서울의 도시화 계획은 고층빌딩과 고가도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소시민의

16) 임희국,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278.

17)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하)』(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649.

18) 박정세, "1970년대 도시 빈민 선교의 유형과 특성," 『신학논단』 23(1990/06), 201.

19) 이광일, "읽어버린 진실: 근대화의 일그러진 자화상-광주대단지" 폭동사건, "『기억과 전망』 (2002), 174-175.

20) 미간행보고서: '지역사회 조직 및 주민환경 개선을 위한 선교사업,'(수도권 도시 선교 위원회, 1972/04), 2.

주택, 생활 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화, 도시화 과정에 인간의 존엄이 무시당하는 서울의 한구석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 스스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런 취지하에 본회는 “민주적 시민의식과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우선하여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며 이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회조직 활동 및 연구를 실제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¹⁾

동 위원회는 사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도시화 현상에서 생겨나는 도시민과 사회 문제를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교회가 조직적이며,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 위원회의 활동은 종래의 자선적 입장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가 자기들의 문제를 의식하고 힘을 모아 조직화된 세력을 통해 사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²²⁾

노동력의 도시 집중화와 더불어 수출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저곡가 정책은 자연스레 농촌 경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에 먼저 관심을 가진 곳은 천주교였다. 천주교는 1966년 가톨릭농민회를 조직하여 지역별 활동을 개시하였고, 1972년에는 전국단위의 활동을 시작했다. 개신교는 1974년부터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농민교육을 실시하여 농민 운동가들의 이론적 기반을 튼튼하게 했다. 1982년 3월에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이 창설되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나갔다.²³⁾

4) 인권 및 민주화 운동

김상근은 한국개신교가 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유신개헌 반대 투쟁에 나섬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²⁴⁾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유신체제는 박정희 독재 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한 반헌법적 권력남용이었다. 서릿발치는 유신체제에 맨 처음 저항한 것은 개신교 내의 젊은 진보적 저항세력들이었다. 4월 22일 남산부활절연합예배 당시 수도권 도시선교위원장 박형규목사, 실무자 권호경, 김동완 전도사 등과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의 학생 나상기, 황인성, 정명기, 이상윤, 서창석 등이 민주회복과 언론자유, 현 정부의 회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며,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전단을 배포했다.²⁵⁾

21) 앞의 책.

22) 앞의 책, 3.

23) 한국기독교역사학회편, 『한국기독교의 역사III: 해방이후 20세기말까지』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234.

24) 김상근, “1970년대의 한국 기독교 운동,” 『기독교사상』(1984/11)

5월 20일에는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기독교 민주화·인권운동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 선언에서 “유신은 국민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국민의 요청임과 동시에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라고 명명한다.²⁶⁾ 이후 6월 말이 되자 남산부활절연합예배 관련자 전원이 내란음모죄로 구속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물론 가맹 교단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구속자들의 조기석방을 위해 조사 및 대책 위원회를 꾸리고, 기도회 등을 통해 민주화의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각 신학대학 교수·학생 및 각 교회 청년들이 앞장서 구속자 석방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정부에 항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이에 대한 교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3년 11월 23일과 24일 신앙과 인권협의회를 열어 ‘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인권탄압의 해결에 기독교인들이 나설 것을 촉구한 이 선언은, 인권 확립을 위해 교회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 문서는 기독교 인권 운동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존엄성 근거를 제시하고 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인권 확립에 있음을 천명했다.²⁷⁾ 이 무렵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어나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새해 벽두에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2호를 선포했다. 긴급조치에 의하면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였다.²⁸⁾ 같은 해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민청학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중·민족·민주선언”등을 발표하고 연합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을 가졌는데 이것이 사전에 당국에 알려져 관련자 1,024명이 점거되었고, 이 중 8명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수십 명이 무기징역부터 15-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²⁹⁾ 정부의 인권 탄압이 심해지고 기독교인 구속자가 늘어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4년 5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성서적 신앙”에 의거하여 “인권의 유린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책임”을 수행할 인권위원회를 창설하였다.³⁰⁾ 구속자 석방과 유신헌법에 대한 교회 저항이 들불처럼 타오르자 각 교단도 민주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1974년 9월 한국기독교장로회

25) 앞의 책, 34-35.

26) 정병준,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6(2022/3), 21.

27) 윤은주, “한국교회의 인권운동과 통일선교,” 『신학과 실천』 44(2015), 453.

28) 한국기독교역사학회편, 『한국기독교의 역사III: 해방이후 20세기말까지』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239.

29) 역사학연구소,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서울: 도서출판 서해문집, 2004), 398.

30) 한국기독교역사학회편, 『한국기독교의 역사III: 해방이후 20세기말까지』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239-240.

제59회 총회가 선언서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서 장로교(통합) 제 59회총회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12회 총회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974년 12월엔 대한예수교장로교(통합) 총회장의 이름으로 시국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4개 항목의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다. 첫째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조속한 사면, 둘째는 강제 추방된 미국 감리회 선교동역자 죠지오글 목사에게 대한 추방령을 해제하고 그의 재입국 선교활동을 허용할 것. 셋째는 국론의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의 능동적인 총화를 성취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정보기관의 종교사찰 행위와 공포분위기 조성 등을 즉각 중지할 것. 넷째는 창조적이고 양심적이며 건설적인 비판이 탄압받지 않는 자유민주사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³¹⁾ 국민과 지식인 그리고 교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계속해서 고집하며 인권을 짓밟았다. 이러한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은 세계 언론, 인권단체 그리고 세계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 이로 인해 미국 하원은 1975년 회계연도 2억 3천 800만 달러의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 요구를 1억 4천 500만 달러로 삭감했다.³²⁾ 한국 교회의 인권운동 세력이 서릿발 날리는 독재정권의 탄압을 견딜 수 있었던 지원은 WCC와 독일교회 그리고 기타 해외교회들과 재외 한인동포 기독교인들로부터였다. 각 기독교연합단체, 신학교 교수와 학생, 교단이 발 벗고 나섰지만, 교계 안에서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도 상당했다. 그들은 설교·성명서·기도회 등을 통해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 시기 보수적 교회지도자들과 박정희 정권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반공이었다.

3. 1980년대 이후 개신교 사회운동

1)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교회

거대 보수교회와 독재정권의 야합에도 불구하고 유신독재정권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했다. 이미 내부적으로부터 붕괴되었던 유신독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정권 내부 갈등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므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유신독재정권의 뒤를 이어 신군부 독재정권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했고, 민주화를 염원하던 1980년 5월 광주에 비극으로 되돌아왔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광주 시민들을 신군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31) 강혁,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를 향한 제언: 정류 이상근 박사의 국가관과 통일관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7(2022), 117.

32) 정병준,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6(2022/3), 23.

일에 있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한국기독교계의 반응은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KNCC 인권 위원회는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6월 28일에야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인권 위원회와 교회와사회위원회를 소집하려 했지만, 이 역시 당국의 불허로 성사되지 않았다.³³⁾ 1980년 6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교회가 보인 전형적인 반응은 희생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와 추모예배를 갖는 것이었다. 광주 민주항쟁을 폭력으로 진압하여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사회 모든 부문을 통제해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화 세력을 강하게 탄압했다. 신군부의 통제와 탄압은 이전 박정희 군사정부에 비해 더 철저했다. 1980년 8월 6일 “나라를 위한 조찬 기도회”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는데, 이 기도회에서 각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급 지도자 23명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을 찬탈하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최종 책임자인 전두환을 위해 축복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조찬기도회 직후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³⁴⁾

2) 한국교회의 통일·화해 운동

1980년대 후반은 국내외적으로 큰 변혁의 시기였다. 국제적으로는 1985년부터 본격화된 소련의 개혁노선이 대내적 페레스트로이카와 대외적 평화 전략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탈냉전을 촉발했다. 내부적으로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직선제 개헌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에 자신감이 넘치고, 통일 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였다.³⁵⁾ 한국전쟁과 분단 이후 1980년 이전까지 통일 운동은 오직 정부의 몫이었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를 것 없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통일에 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독점했고, 독점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상대를 악마화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했다. 한국교회 역시 빈약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 정책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고, 과거 전쟁의 기억 안에서 반공적인 성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1980년대 한국교회의 통일 운동은 그간 진행되었던 한국교회의 통일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반공의 첩병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국내에 소개했고, 통일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당국이 아닌 세계교회를 통해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³⁶⁾ 1981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독일개신교회연합회(EKD)가 제4차 에큐

33)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 (서울: 북코리아, 2009), 215.

34) 앞의 책, 244-245.

35) 정성한, 『한국 기독교 통일 운동사』(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3), 237-238.

메니컬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통일 문제를 화두로 삼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81년과 1982년 양국 정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동포 기독교인들 간에 만남이 주선되었다. 1차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2차는 헬싱키에서 만나 남북 화해와 통일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사회 정치 상황에서 통일을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았다. 그러나 세계교회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꾸준히 언급했다.³⁷⁾ 1984년 10월 세계교회협의회는 ‘동북아시아 정의·평화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기독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남북 양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하여 남북 이산가족 찾기와 공향 방문 등을 추진했다. 1986년 9월 2일에서 5일까지 세계교회협의회는 스위스 글리온(Glion)에서 ‘제1차 남북 기독교자 협의회’를 주관했다. 남북의 교회 대표단은 글리온에서 함께 만나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의 성서적·신학적 기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³⁸⁾ ‘제1차 글리온 회의’는 서로에 대해 어떤 특정 입장을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만남을 통한 교류를 넓혀 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남북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성만찬을 나누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한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보듬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용기를 얻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약 2년의 시간을 준비하여 1988년 2월 29일 제3 1988년 11월 23일에서 25일까지 남북교회는 ‘제2차 글리온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 용기를 얻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약 2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1988년 2월 29일 제37차 총회에서 소위 88선언으로 명명되는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선언’을 발표하여 채택했다. 이 선언서는 먼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전통을 밝히고, 이후 민족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논한다. 또한 분단체제 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깊고 오랜 증오와 적개심을 품어왔던 일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고백한다. 이후 민족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을 선언하며,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에서 선언문은 그 원칙을 1972년 남북 간에 최초로 합의된 7·4공동성명에 나타나는 1)자주 2)평화 3)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정신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다.³⁹⁾ ‘제2차 글리온 회의’는 1차와는 달리 서로에 대한 친밀도가 있는 상황 있었고, 나눔 역시 화기에

36) 강혁,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1980년대 교회의 만남과 역할,”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20.

37) 앞의 책, 108.

38) 통일위원회, “남북교회 상봉기: 제1차 글리온회의 참관기,” 『1980-2000 한국교회평화통일운동자료집』(2000), 61-64.

39) 통일위원회, “1988.2.29. NCKK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1980-2000 한국교회평화통일운동자료집』(2000), 102-110.

애했다'제2차 글리온회의'를 통해 남북교회는 서로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글리온 선언을 발표했다. 서로의 주장과 의견이 팽팽히 맞서 선언문의 도출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선언을 통하여 남북교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선언이었다.⁴⁰⁾ 본 선언문은 서론에서 1986년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채택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와 19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 및 동년 4월 인천의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 세계대회”의 메시지 등에 나타난 정신과 합의 사항 등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 이후 신앙의 결단으로 한(조선)민족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이후 8가지 건의를 통해 남북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⁴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을 발표하자 다수의 개신교 교단과 단체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개중에는 남북교회의 대표들이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만남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자 한국 개신교의 보수성향의 교단들이 하나둘 북한 선교를 시작했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의 평양노회가 1990년 초반부터 ‘탈북 동포 돕기’, ‘한우 보급 운동’, 북한에 성경 보내기, 온실 건립지원 등을 추진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약 10년 뒤인 2002년 북한의 결핵 요양소 한 곳을 전담하여 지원했다. 이후 한국교회 안에는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바람이 불었다. 한기총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창구의 일원화’, ‘단일기독교단’설립,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교회의 설립을 내세웠다. 또한 한기총은 북한교회 관련 사료를 조사하여 남북한 분단 이전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교회들 가운데 2,907개의 교회 자료를 발굴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⁴²⁾

4. 나가는 말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개신교의 사회운동은 그리스도인의 양심 앞에 주어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했다. 한국개신교는 늘 역동적이었다. 성령의 부르심 앞에 시대의 정신을 읽고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역시 함께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개신교의 사회운동 노정 안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첫째로는 한국개신교의 사회운동의 뿌리

40) 강혁,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1980년대 교회의 만남과 역할,”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12-113.

41) 통일위원회, “1988.11.23.-25. WCC, NCCK,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Glion) 선언:글리온 2차회의,” 『1980-2000 한국교회평화통일운동자료집』(2000), 147-149.

42) 임희국,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286-287.

가 너무나 약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활동에 비해 그 영향력이 소수의 엘리트 지도자들의 역량에 따라 한 순간 전개되었다가 어느 순간 유행 지난 옷처럼 외면당하고 사라진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정국을 이끌었던 수도권도시선교회는 '한국특수지역선교회'로 개편된 후 얼마 지속하지 못하고 1979년 해체되면서 공식적인 빈민선교는 막을 내렸다.⁴³⁾ 우리 사회의 변동이 그만큼 빠르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사회운동의 유산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후세대를 양성하지 못한 것도 또한 이유일 것이다. 비판적 성찰의 두 번째 지점은 보수적 기독교 진영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 대한 반성 부족과 한국개신교 사회운동을 이끌어 왔다는 소위 진보적 기독교 진영의 도덕적 우월성의 과시 역시 앞으로 한국교회가 맞이할 새로운 미래에 자칫 독으로 작용할 염려가 크다. 지난 90여 년 간의 한국개신교 사회운동의 빛나는 성과는 보수 혹은 진보로 나뉘는 한 진영의 열매가 아니다. 이는 한국교회 전체의 사역이었고, 한국교회 전체에게 주어졌던 시대적 사명이었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의 전문은 그 신조를 따르고 붙잡는 이들이 어떤 류의 사람들인지를 선언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류를 형제로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사회의 기초적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사회신조의 전문은 철저하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청지기로서의 자기 인식을 명확히 한다.⁴⁴⁾ 앞으로 한국개신교는 민족의 화해를 이루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당장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개혁을 해야 할 필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진영으로 나뉘어 자기만족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가능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연합하고, 일치된 교회로 우리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짧은 기간 안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뤘지만,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출렁인다. 1932년에 그랬듯, 1970년대 이후와 21세기의 사반세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그 출렁임이 변함없다. 늘 인권의 사각자리에 놓인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되고, 절망한다. 1932년 9월에 채택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는 채택 이후 오늘날까지 무효화되지 않았다. 즉,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신조로서 그 법적 유효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는 한국교회에 있어 근대 인권과 노동에 있어서 기본규범이 될 뿐 아니라, 시대의 요구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며, 그 정신을 발전시킬 한국교회의 거대한 실천적 믿음의 유산이다.

43) 한국기독교역사학회편, 『한국기독교의 역사III: 해방이후 20세기말까지』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233.

44)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사회신조초안.”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제9회회의록」(1932), 52.

참고문헌

- 강혁.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1980년대 교회의 만남과 역할.”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강혁.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를 향한 제언: 정류 이상근 박사의 국가관과 통일관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7(2022)
- 권진관. “1970년대 산업선교 활동과 특징: 2세대 사업선교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22(2005/03)
- 김명배. 『해방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 서울: 북코리아, 2009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 (하)』.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제3개정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
- 박정세. “1970년대 도시 빈민 선교의 유형과 특성.” 『신학논단』 23(1990/06),
- 백낙준. “한국기독교회의의 사회신조.” 『한국교회사학회지』 1(1979)
- 역사학연구소.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서울: 도서출판 서해문집, 200
- 윤은주. “한국교회의 인권운동과 통일선교.” 『신학과 실천』 44(2015)
- 이광일. “읽어버린 진실: 근대화의 일그러진 자화상-광주대단지” 폭동사건. “기억과 전망」 (2002)
- 임희국.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 정병준.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6(2022/3)
- 정성한. 『한국 기독교 통일 운동사』.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3.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조사연구자료19. 서울: 기사연, 1984.
- 한국기독교역사학회편. 『한국기독교의 역사III: 해방이후 20세기말까지』.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회의록>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사회신조초안,”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제9회회의록』(1932), 52.

<신문>

- 조병호. “돌보기교회사/민중의 아픔에 동참한 기독교청년들.” 『한국기독교공보』, 제13면, 2004.9.11.
- “왜곡보도중지하라.” 『한국기독교공보』, 제2면, 1979.08.25.

<자료집>

통일위원회.“남북교회 상봉기: 제1차 글리온회의 참관기.” 「1980-2000 한국교회평화통일운동자료집」(2000).

통일위원회.“1988.2.29. NCCK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1980-2000 한국교회평화통일운동자료집」(2000), 102-110.

통일위원회.“1988.11.23.-25. WCC, NCCK,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Glion) 선언:글리온 2차회의.” 「1980-2000 한국교회평화통일운동자료집」(2000), 147-149.

미간행보고서: ‘지역사회 조직 및 주민환경 개선을 위한 선교사업.’(수도권 도시 선교위원회, 1972/04). <민주화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107038>

“<사회신조>를 통해 본 197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사회운동
- 그 의미와 과제” 에 대한 논찬

1932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사회 신조는 외적으로는 사회주의자들의 기독교를 향한 냉철한 비판,¹⁾ 내적으로는 여러 교단과 기독교 단체의 사회적, 신앙적 자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사회적 자성은 다양한 시각에서 시도되었는데 예수교청년회연합회 발기문(1921. 2. 16), 기독교신우회 선언(1929. 6. 12), 적극신앙단 선언(1926년 기독교연구회 조직), 남감리회 사회 신경, 기독교조선감리회 사회 신경(1930. 12) 등이 그것이다.²⁾ 이들 요청을 하나의 신조로 모은 사회 신조는 자기성찰의 기회였으며, ‘사회복음’(社會福音) 사조(思潮)의 수용을 통해 사회적 표준이 되었다. 식민지 현실과 시대적 요청에 따른 1920~3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회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펼치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 설정에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³⁾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70, 80년대 기독교 민주화 인권운동에 대한 고찰은 한국 기독교가 갖는 사회적 책임 의식과 민중적 시각이 일제 강점기 사회 신조의 역사적 전통의 맥락을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전통이 각각의 시대적 공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왔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70년대 민주화운동의 서술은 사회 신조의 실천성으로서 드러나는 도시산업선교, 도시빈민선교, 농민선교 활동을 부각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조직적인 대응을 밝혔다. 사회성으로서 민주화운동을, 윤리성으로서 기독교 인권운동이 성서적 신앙에 의거해 저항의 들불로 확산되는 과정을 살핌으로 사회 신조의 역사적 연속성을 밝혔다.

1) 사회운동세력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지목하여 배척운동을 전개하였다. ‘종교는 미신과 허위’라는 반종교 강령을 채택하고 국내에서의 반종교운동(反宗教運動)을 공식화하였다. 이들은 반종교 논리를 토대로 하여 1925년부터 기독교를 “제국주의 수족(手足)”, “자본주의 주구(走狗)”, “양이양심(羊而狼心)의 기독교” 등으로 주장하거나 성탄절을 ‘반기독교데이’로 정하는가 하면 김익두 목사와 같은 부흥사들을 ‘고등무당’이라고 비판하면서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하였다.(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교회의 사회복음 수용과 사회윤리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제16집, 2008, 168) 사회주의자들의 반종교운동은 3.1운동 이후 개신교의 식민지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었다.

2) 이덕주·조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서울:한들, 1997), 133-146

3)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교회의 사회복음 수용과 사회윤리에 관한 연구”, 166

그는 또 80, 90년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통일과 민족 화해의 노정이 사회 신조와의 역사적 맥락의 의미로서 상호연결됨을 재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다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시대의 요구안에서 재해석 되는 사회 신조의 정신을 발전시킬 믿음의 유산으로서의 거대한 실천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신조의 가장 큰 유산이 실천성임을 강조하여 오늘에 주어진 과제의 전제를 실천성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설명되어야 할 의문점이 있다.

첫째, 전체 논지가 사회 신조의 계승으로서 1970, 80년대 민주화 인권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연구였는데 결론의 첫 번째 비판적 요소는 “한국 개신교 사회운동의 뿌리가 약하다는 점”으로서 앞선 전체 논지와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개신교 사회운동의 뿌리로서 1932년 사회 신조는 그보다 앞선 여러 교단과 단체와 개인에 의해 축적된 신앙선언의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 당시 식민지 농업정책, 이례적인 한재, 노동쟁의 및 토지분쟁 등 한반도의 민중의 삶이 날로 척박해 갔던 시기⁴⁾에 기독교인이 사회운동을 통해 시대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이 함께 누적된 선언이었고 1970, 80년대를 넘어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역사적 전통으로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연구자는 이 비판의 근거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I』, 233쪽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를 이어받은 한국 특수지역 선교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도시지역 빈민선교 활동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는 문장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문장인 ‘이 운동의 민중 지향성은 1980년대의 민중교회, 노동자교회, 농촌선교 운동 등으로 이어졌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1980년대에 등장한 개신교 사회운동 단체들은 1970년대 앞선 단체의 뒤를 이어 더 세분화, 다양화, 전문화된 영역으로 확대해 갔다. 포괄성과 광역성의 특징도 명백히 보인다.⁵⁾ 특히 민중교회는 1984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991년까지 총 119개의 민중교회가 창립되면서 70년대 맥락을 이어갔다.⁶⁾ 따라서 연구자의 지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4) 1933년 통계를 보면, 궁민호 비율이 43.8%에 달한다. 특히 전복은 64.3%에 달하며 농자(農資)가 없는 농가는 92%나 되었다.(강만길,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서울:창작사, 1987), 75) 1928년 전례 없던 한재, 1929년 세계 대공황,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파시즘 체제의 강화로 인한 한반도 민중의 삶은 그야말로 초근목피에 진흙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궁핍한 삶을 살았다. (같은 책, 83)

5)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약칭 기농, 1982.3.18),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약칭 기노련, 1985.2), 개신교 여성운동 조직으로 기독교여민회(약칭 기여민, 1986.7),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약칭 기빈협, 1986.11), 민중교회 운동조직으로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약칭 한민연, 1988.7) 등이 조직되었다. 또 1980년대 말에 이르러 ‘부문, 지역운동들의 연합체’를 형성하였는데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약칭 기사련, 1989.3)이 그것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파주: 돌베개, 2011), 507-508)

6) 위의 책, 512

둘째, ‘진보적 기독교 진영의 도덕적 우월성의 과시 역시 한국교회가 맞이할 새로운 미래에 자칫 독으로 작용할 염려가 크다’는 지적에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진보 진영의 도덕적 우월성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났고 연구자는 어떤 측면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로 한다.

셋째, 198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연구자가 지적한 바대로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대처 양상이 부족했던 것은 인권위원회 기록을 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재야 및 기독교인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기운 목사의 의문사, 김이기 열사 투신, 김종태 열사 분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반성이 있었다.⁷⁾ 하지만 1984년부터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적극적인 개신교 운동의 행보가 나타났고 1985년 ‘기독자민주쟁취대회’, 1986년 ‘시청료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 1986년 ‘기독교민주헌법개정 서명운동 추진본부’, ‘부천서 성고문사건’,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기인에 38.9%의 개신교 참여율을 기록하는 등⁸⁾ 1980년대 기독교민주화운동은 70년대 투쟁을 기반으로 하여 대중성의 확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평신도 참여 확대, 보수교회들의 참여 확대가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였지만 이를 하나의 선언으로 모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⁹⁾ 그런데 이들의 민주화의 열망을 통일논의로 이끄는 데 공감대 형성의 문제는 없었는지, 모처럼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된 사명의식을 갖고 실천한 민주화 인권운동에 통일운동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는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7) 광주민주항쟁에 대해서는 관련자 석방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역사의 오점’을 남기다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서울: 새롬, 2005), 171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파주: 돌베개, 2011), 509-510

9) 1987년까지 ncc 인권위원회가 전국 48개의 각 지역에서 창립선언을 하였다. 만일 한 지역에서 조직된 임원교회만 하더라도 6-7개 교회가 있다면 전국에 걸쳐 3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토론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제4차 학술심포지엄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퍼 낸 날 2022년 9월 14일

퍼 낸 곳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교회관 704호 (우)03129

전 화 070-7707-8431

E - mail ncck100@kncc.or.kr

홈페이지 ncck100.or.kr

